

우리문화

차 례

• January • February • 통권 192호

Inside KCCF

02	시작하며	
04	신년사	
08	새 정부에 바란다	
16	연합회소식	정기총회 · 이사회
20	특별기고	그리운 것은 다 문화원에 있다
24	문화원탐방	강화문화원
29	문화원이야기1	성남문화원 역사의 인물을 찾아
33	문화원이야기2	산청문화원 뿔성부른 나무와 뿔성부른 떡잎
37	연합회소식	문화 · 역사마을가꾸기 사업
41	연재1	문화원 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46	연합회사업탐방	국제결혼이주여성_남해문화원

Outside KCCF

52	함께 읽는 시	봄의 그늘
54	함께 읽는 수필	내 영혼과 바다
57	특집	다문화시대, 어디로 가는가
58		다문화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62		다문화 시대의 청소년 교육
67		한국의 외국인 인권현황과 과제
76	연재2	향토민요 아리랑의 존재와 강원도의 아리랑 양상
80	탐방	예술제본공방 '렉또베르쑈'
85	책갈피	
89	연합회레이더	우리문화 소식 · 원장동정



표지그림 울진영덕아리랑
그린이 김정
바다와 소나무 등 영덕의 수려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서양화 기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아리랑 이미지와 연결해 복합적으로 묘사한 그림.

등록번호 라36627(1984. 7. 12)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권용태 편집위원 관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영수(청주문화원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내 더위 사가세요.”

“나는 더위 많이 안 타니까 나한테 파세요.”

정월대보름 점심식사 시간, 연합회는 시끌벅적합니다.

식당에서 상에 올라온 몇 가지 나물 반찬에도 다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대보름날을 기리는 것은 예전만 못해도 우리 마음은 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나물반찬에 오곡밥을 지어먹고

휘영청 보름달을 보며 쥐불놀이를 하며 부풀었던 그 마음이

꼭 그때와 같습니다.

부럼을 깨물어 건강을 빌고

한잔 술로 귀를 밝히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던 둥근 마음들,

연합회 뿐 아니라 지방의 문화원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지방문화원장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문화원연합회는 여러 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향토 문화를 일구시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 오신 원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지난 1월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에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지방문화원을 적극 지원 육성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역점 추진과제로서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와 외국인 등 다문화 정책추진의 중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사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공약을 얻기까지 지난 대선 기간 중 연합회 회장단과 임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큰 힘이 되어 준 문화관광부 성남기 문화정책국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 원장님과 함께 또 하나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복권기금 규모축소로 삭감되었던 예산을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통합신당 등 초당적인 협조를 얻어서 증액을 이루어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올 해는 전국 문화원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들을 단순히 복지적 관점에서 돌봄과 수혜의 대상

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의 생산자로서 문화의 주도세력으로 2모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버문화를 활성화하는 선진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인 정부 지정기관으로 다문화교육센터를 개설하여 해외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인 이질감 해소와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서 수혜자인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민까지도 함께하여 새로이 문화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성숙된 다문화사회로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 원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연말 문화비전 선언을 통해서 발표했던 '문화원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기반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을 연결하는 문화 매개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원이 1년 동안 펼쳐 온 다양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특히 국민들의 관심과 지역문화를 체감하는 문화지표를 발표함으로써 이 날의 의미와 공공성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또 '올해의 문화원상'을 제정해서 문화원 탄생 60주년과 문화원의 제 2출발의 기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25일 문화 관련 학회와 인수위원회의 사전 교감을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운하 공약만큼 국운 대응성이라는 하나의 측면과 국가 대재앙이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운하가 문화 관광과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

고 그 반대로 대규모 문화유적 파괴를 가져오는 무모한 대역사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꽤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는 대운하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는 대운하 건설에서 경제논리를 알지 못합니다.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환경파괴 등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문화원 측면에서는 지역과 문화를 접목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계획은 강의 수송로 기능을 회복하면서 강 주변으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강 문화와 역사의 복원, 강 주변의 지역문화를 발굴 전승 보존하는 전통의 복원, 수천년 동안 축적된 문화 유산과 각종 스토리, 운하에 담겨 있는 강의 문화가 정리되고 개발 형성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할 때 우리 연합회가 구상하는 기본 방향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지역간 문화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운하 건설시에 주요 터미널마다 지방문화원의 분관 형태로 지역문화관을 설치하여 지역의 향토사로 전시라든지 발굴된 유물 전시 등 강 주변의 특성에 맞는 향토문화축제 개발 등을 제안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역마다 구성될 가칭 '한반도대운하지역문화발전협의회'에 지방문화원장을 단체 대표로 참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구상을 하고 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년부터 시행할 1문화원 1기업의 결연사업이나 지역문화사 전문인력의 양성문제, 사무국장의 급료 현실화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각종 부대사업에 실기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 지방문화원의 위상이 보다 격상되고 부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해를 반전의 기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합회가 시행한 사업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해에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1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문화원 원장에게 듣는다

새 정부에 바란다



문화예산 3% 증액

김영섭 서울특별시지회장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 것이다. 그 변화의 바람은 곧 모든 국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문화가 그 변화의 바람을 주도해야 한다. 문화의 정의가 바로 “인지의 발달에 따른 변화 및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나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변화의 바람은 반드시 그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다시 또 ‘개혁의 피로’와 같은 중세의 ‘변화의 피로’만 느낄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 15위 규모에 랭크업 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54위라고 한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개발은 15위이지만 국민정서의 기본이 되는 정신문화개발은 54위란 말과 무엇이 다른가?

삶의 질 향상의 척도인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예산을 3% 선으로 대폭 늘여야 한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인면수심의 인간들에게 양심을 돌려준 것은 경비병의 호각소리도 총소리도 아닌 첼로의 가냘픈 멜로디였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콘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최대공약수와 같은 민족전통문화진흥을 통한 한민족의 정체성확립에 역점을 두는 그런 문화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경제·문화 병진정책

이규상 부산광역시지회장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부동산의 폭등 등으로 야기된 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한 시기에 반드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당선인의 의지표명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장을 우선시 하는 시장 경제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감이 있어 문화계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몽고족이나 명나라를 멸하고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도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중국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망조가 들어 결국은 쇠퇴하고 말았다. 그러기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제아무리 강력한 군사력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쇠퇴하고 말듯이 경제만을 우선시 하고 문화를 홀대하노라면 마침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참작하여 경제와 함께 문화가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4718호)에 의거 설립된 문화

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08년 현재, 광역시·도에 16곳의 지회와 전국 시·군·구에 225곳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정명표 대구광역시지회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나아가 문화전쟁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듯이 문화의 양과 질 그 활용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우열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 발전 수단으로서의 문화, 소비 대상으로서의 문화, 특히 전통문화와 민족 문화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볼때 문화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전승물이 아니라 소중히 보호되고 전승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통문화의 단절과 정부 문화정책의 획일화로 지역적 특색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역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 시키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토문화 발굴 등 지역 문화단체 및 시설을 연계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 획기적인 투자로 향토문화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지방문화원이 문화원의 허브 역할을

허문명 인천광역시지회장

미래는 문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백년 안에 가장 승배 받는 사람은 들판에 핀 꽃을 가장 잘 묘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적이 있다.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의 크기가 국가와 민족, 지역과 중앙의 경계를 넘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변화양상을 보면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화정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외국인 및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버들이 재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이렇게 다양성과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문화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문화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주체성 있는 민족 교육에서 세계화 이룩된다

문병란 광주광역시지회장

경제가 나무의 뿌리에 자양분을 제공한다면 문화란 그 나무에 피는 꽃이나 열매에 해당한다. 뿌리에 자양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의 정부에서도 이 문화정책을 강조하였지만 예산편성에 나타난 배분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소외되었고 친불친 패거리 의식이나 지역별 분야별 균점 혜택의 공정성이 의문시 되었다. 보다 폭넓고 세밀하게 골고루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 세계화나 세계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문화적 전통성이나 그 뿌리, 문화적 주체성을 몰각하고 외래문화 유입이 마치 세계화의 길인 양 착각한다면 세계화도 실패하고 자국문화 보존이나 창조에도 실패할 것이다. 개화사상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도 '서양의 시표(시계)를 차고 몇 마디의 혀 꼬부라진 소리를 지껄인다고 개화인인 양 하지만 이는 진정한 개화인이 아니라, 개화의 병신이라' 하였다. 주체성을 잃고 외래문화에 경도된다면 '원숭이 문화'라 할 것이다. 흉내 내기 100년의 식민지적 변질된 문화정책을 극복하려면 전통의 지향정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가리는 주체성 있는 민족교육에서 세계화가 이룩될 것이다.



문화의 세기, 강화된 문화정책 희망

조성남 대전광역시지회장

문화가 돈과 경쟁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에 와 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은 이제 문화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시대적 키워드에서 볼 때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시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새 정부가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단순히 산업성장만으로 7%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기 소르망박사의 지적대로 '문화혁신을 통해 문화·관광·창조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7%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를 문화경쟁력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과감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을 기조로 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문화창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지방문화발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구촌시대에서 문화경쟁력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좌우되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지방문화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지방문화의 중심축인 지방문화원에 보다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경쟁력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기를

김철 울산광역시지회장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게 될 지도자를 선택하였다.

새 정부가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은 사회복지, 경제,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 건설' 이기를 바란다. 이것은 각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상생하고, 그 힘으로 한국 경제와 문화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일은 다방면으로 산재한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충분히 가능하리라 희망한다.

또한 새 정부는 지역의 문화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던 문화, 경제발전의 기회 등 산재한 사회적 편차를 해소하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충분한 지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의견을 문화정책에 적극 수렴하여 새 시대의 정책을 입안하고, 균형 잡힌 문화국가, '21세기 대한민국 건설'의 지표로 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문화 등에 대한 특별정책 기대

남선우 경기도지회장

문화대국인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문화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내각의 각 부 장관과 의회지도자들에게 '문화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한대하지 말고 꾸준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프랑스를 오늘의 세계 문화대국으로 만들었다.

1998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가총예산에서 1%를 문화관광예산으로 확보하였다. 그러던 것이 9년 후인 2007년에 들어와 국가 총예산에서 0.98%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까맣게 타들어 가게 하는 국보 1호 문화재 송례문(남대문)이 타는 아픔을 겪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모두가 문화재 보호와 문화에 갖는 의식이 낮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몽골 등의 처녀들이 농촌으로 결혼하여 오는가 하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른 다민족국가가 되면서 다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의 실버문화와 다민족화 되어가는 현실의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운하가 건설되면 운하가 지나가는 곳곳 터미널에 우리의 삶의 그릇으로 일컬어지는 그 고장의 문화관을 설치하여 문화에 높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해주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축원한다.





미래의 사회는 문화 사회이다

박응진 충청남도지회장

우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부와 더불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복지와 경제 논리 중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한 소위 경제 대통령에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되었다. 당선의 화두는 역시 경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예술 정책은 제대로 거론될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문화의 세기'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래문제 연구집단인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장이었고 현재 드림컴퍼니 대표인 롤프젠센(Rolf Jensen)의 저서 '드림소사이어티'에서는 정보화 사회 다음으로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를 주장하였고 '감성 중심의 정보사회' 속에서 융합된 형태의 드림 소사이어티는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흥미 있는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나 생산물들은 단순히 우수한 품질이나 디자인을 가진 제품보다 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미래의 사회는 바로 문화 사회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감성이 중요시 되는 현재에 와서 경제만 우선시 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 질까 우려된다. 경제도 문화예술도 모두 중요한 행복의 가치라면 어느 하나 좌시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이슈화가 되고 있듯이 경제 개발은 여러 가지 흥역이 따른다. 대운하 건설에 당위성을 입증하고 아울러 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문화적인 혜택에 있다고 본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문화 부흥을 이룩한 임금은 한글, 측우기, 해시계 등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꽃피워 국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되고 그 문화 예술 부흥의 중심에는 225개 전국문화원이 있으며 그 문화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새 정부에 바라는 바이다.



새로운 문화적 환경변화를 기대하며

이복웅 전라북도지회장

현재 지방문화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때부터 시민사회운동이 본격화되고 합법화된 진보세력들이 힘을 결집하여 문화원을 수구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참여정부에 이르러는 진보문화 논객들이 국민적 문화공감대를 뒤로 한 채 그들이 내세운 이론과 실천으로 기존의 문화권위를 파괴하고 명실 공히 문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우리 문화원을 개혁대상으로 표적삼아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진흥법을 촉진하는 등 진보문화 세력들에 의해 많은 시련과 수난을 겪어 왔다.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새로운 문화적 환경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지방문화원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지방문화원 진흥에 있어 획기적인 재정 구조 개선과 전통문화 활성화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일선 지방문화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강렬한 변화와 실천을 기대해본다.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집중하지않을까 내심 우려

조남식 전라남도지회장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궁극적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며 문화콘텐츠분야를 보강하면 대한민국 7%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영상, 게임, 음악, 방송 등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문화예술인들과 만찬자리에서는 '문화도 경제다'라고 했다.

물론 문화산업이 굴뚝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화가 차세대 산업이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내심우려가 된다. 실용주의란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시 한다는 뜻이다. 돈이 되는 곳에 집중투자하고, 돈 안 되는 곳은 후순위로 밀어 놓겠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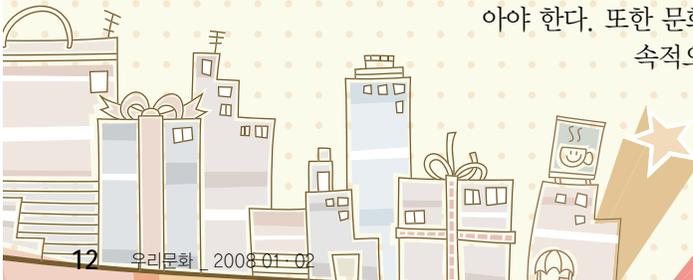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나 실용주의 잣대만으로 투자나 지원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계다. 기초 문화예술분야가 튼튼하지 않으면 문화산업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영화나 방송, 뮤지컬계의 스타를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돈 안 되는' 연극판이나 공연판에서 연기력을 다져가고 있다. 문제는 바로 기초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초문화예술분야를 보듬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문화예술분야가 바로 문화산업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뭄과 태풍을 견디며 열매도 많이 맺듯이 기초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있어야 문화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예술단체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이에 속한 16개 시·도지회 조직에 따른 225개 기초단체의 지역문화원이 지역문화진흥창달 활동에 크게 기여 헌신하고 있는 225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각 지역 문화예술분야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의 진흥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법으로 취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死)문화 된 채 문화의 21세기라고 구호만 외칠 뿐이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은 '지방문화조성법'을 제정, 원사 신축비 국고 전액지원과 지역문화사업비를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 충분하게 진흥 창달할 수 있도록 최고액으로 지역문화사업비를 원해 준 대통령으로 한국문화원사(史)에 기록된 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선진 한국에 걸맞는 문화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문화의 활용

김종우 경상북도지회장

새 정부의 대국민 공약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경부운하수변 관광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2개, 매장문화재 177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유역의 성곽과 진지, 사찰 등 조사·보고 되지 않은 더 많은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고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과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 예컨대 운하건설로 인한 문화자원 활용가치로는 나무터와 포구가 있다. 나무와 포구는 지역 산물의 집산지이고, 지역문화의 중심이었다. 이별과 만남, 그리고 지역간의 소식을 전해주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서적 접근이 가능한 나무와 포구에 관련된 민속적인 요소인 설화와 전통문화, 토속신앙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는 운하 주변에 집적된 문화자원의 발견과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운하를 통한 문화와 역사 벨트 라인을 형성하여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조훈래 경상남도지회장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이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갈 새해가 시작된다.

‘경제 대통령’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강조하였으니 먼저 경제가 건설해야 국민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표방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선정할 때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21세기는 새로운 문화시대, 지식정보시대로 문화와 관광이 국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떠오르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지회에서는 향후 도래할南海연안권 개발시대에 맞추어 가야문화권 역사 재조명을 통해 문화의 힘을 응집하여 선진화에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때 국민소득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문화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인 ‘배려’ 하는 마음을 생활화 하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 바란다

한공익 제주도지회장

문화는 곧 우리의 삶이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첨단시대에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해도 문화예술키 없으면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없고 마음에 풍요가 없으면 정서는 메마르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문화척도에 따라 그 민족이나 국민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빈곤국가이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비롯한 선비정신과 더불어 사는 정신문화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 사회에서는 방종과 철저한 이기주의화로 나만을 위한 삶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의 도래로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더욱 필요로 한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전승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화를 창출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곳이 문화원이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가 도시집중화 되면서, 지방의 전통문화는 자취를 감춰버릴 위기까지 닥치게 됨을 안타깝게 여기는 각 지방의 뜻있는 인사들이 지방문화원을 설립하여 그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발굴, 연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러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뜻은 있으나 이행하지 못하는 지역도 허다함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문화관광부가 각 문화원에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보조하여 지원하게 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으로 더욱 지방문화원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전국 225개의 문화원에서는 크게 기대를 걸면서 새로운 정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실행해 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 운영하는 특수법인체임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 일반사회단체 범주에서 빼어 문화관광부가 직접 관장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보조 운영을 배제하고 문화관광부가 직접 관리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

셋째, 특히 지방문화원은 각 자치단체장의 의식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 이를 극복하고 어느 한 수준까지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육성 해 주기를 바란다.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는 우리나라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확실한 선진국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배달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삶의 풍요로움과 문화선진국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룩하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① 국민의례 중인 장내 ②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공석중인 감사에 정경진 원장(나주)과 이사에 임영주 원장(마산)을 선임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권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이 보다 격상되고 부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은 성남기 문화정책국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작년과 같이 문화계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큰 용기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금년에도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면서 기대에 보답하는 문화관광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의안인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과와 제2호의안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았으며 제3호의안인 임원보선의 건 중 지난 번 제주 임시총회에

서 보류되었던 감사보선의 건은 2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 결과 나주문화원 정경진 원장이 다수득표로 선임되었으며 공석 중인 이사에 이사회에서 추천한 마산문화원 임영주 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정기총회의 의안심의에 앞서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 및 지역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시상이 있었다.



①② 감사보선의 건으로 투표 중이다 ③ 정기총회 시작 전 전경 ④ 감사로 선임된 정경진 원장 (나주문화원) ⑤ 이사로 선임된 임영주 원장(마산문화원)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자 명단〉

- 2007년도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
김환옥 원장(서울 서대문) 구정희 원장(부산 사상) 신호철 원장(대전 동구)
장재찬 원장(양평) 배선기 원장(정선) 김원철 원장(부안) 이우중 원장(울릉)
- 2007년도 지역문화 활성화 유공자
오용원 원장(평택)

격려사

전국에서 올라오신 지방문화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문화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의 공로로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문화계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며 2008년에도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대도시부터 농어촌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전국 224개 지역에 설치되어 60여 년간 지역문화가 메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달샘이 되고 때로는 큰 강줄기가 되어 문화의 맥을 지켜 왔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지방문화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창의적 문화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는 전방위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으며 지역과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움직이는 국가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더이상 감성과 여가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화는 문화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국의 지방문화원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30일

문화관광부 장관 김 중 민

2008년도 제1차 이사회

신규회원으로 부산남구문화원 가입승인, 권연옥 원장(천안) 제명 결의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벨라지오룸에서 2008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로서 2007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정기총회를 1월 30일 오전 11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갖기로 하는 한편, 결원 이사에 마산문화원 임영주 원장을 정기총회에 추천키로 의결하였다.

제5호의안으로 상정된 회원 가입 및 제명의 건은 부산 남구문화원의 설립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으며, 직원 및 강사 성추행사건으로 2007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은 본인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이 결정되었다.



12 이사회 전경

그리운것은다 문화원에있다

● 여자이름 잘 기억하는 재주

암기력이 영 신통치 않은 내가 신기하게도 여자이름 하나는 남보다 잘 외는 편이다. 여자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할 때 담임반 학생들 이름을 달달 외워대다 터득한 노하우 덕분이다.

여자이름, 의외로 기억하기 쉬운 구석이 있다. 십중팔구 끝 자가 자희순숙(子姬順淑)인데다 얼굴의 특징과 연관시키거나 발음상 비슷한 어휘들을 연상하다보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규인은 쿤, 안달이난 안달순, 이미 자고 있는 이미자, 하는 식이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준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지름길이고 믿음을 붙여주는 아교가 된다. '내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내가 여성 숭배론자 이거나 은근히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기대심리가 유별난 사람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사회가 낡은 인습 탓에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은 잊혀지고 '아무개 엄마' '무슨 맥' 하는 호칭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풍토에서 여성들 이름을 거침없이 불러주는 내가 아무리 짜리몽땅한 불품없는 용모의 소유자라도 호감을 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순에 이르러 문화원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 됐다. 여성 회원확보에 촉진제로 작용했고 이어 남성회원 증강에까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파우스트에서 괴테가 갈파한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도다'는 '영원한 여성파워가 문화원을 이끄는 도다'로 바뀌어 회원이라고는 고작 임원 1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2~3년 만에 5백 명을 헤아리는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 여성국장, 여성이사까지 가세하여 지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의 숲을 이루었고 별이는 일마다 활기가 넘쳐났다. 성공사례라 하기에는 낮간지러우나 참고할 가치는 있을 법하다.

● 문화원장 십계명(十誡命)에 담은 뜻

2006년 전국 신임원장 연찬회에 '문화원장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나는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문화원장 십계명'을 선정, 발표하여 얼마간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물론 여성이름 잘 외는 덕을 토포하곤 본 일화를 토대로 '문화원장은 여성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여성예찬론자가 되라'로 좌표화한 것처럼 열 가지 모두가 나름대로의 배경일화가 있으나 이곳에는 행동강령만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무보수 봉사직'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
2. 문화원장은 봉이 아니다. 판공비가 없다고 변상비 많이 물지 마라.
3. 문화원장은 문화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부지깥이다. 항상 젊음의 열정을 견지하라.
4. 문화원장은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조선일보도 보고 한겨레신문도 읽어라.
5. 문화원장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특성화만 찾지 말고 보편성도 찾아라.
6. 문화원장은 백과사전이 될 수 없다. 다만 백과사전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7. 문화원장은 여성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여성예찬론자가 되라.

- 8. 문화원장은 애향심의 나팔수다. 향토의 노래를 애창하고 사투리를 즐겨 쓰라.
- 9. 문화원장은 유머감각이 필요하다. 품위 있는 Y담 1백개를 확보하라.
- 10. 문화원장은 넥타이 대신에 타이슬링을 즐겨 매는 자유인이 되라.

이 중에 걷어 내거나 바꾸고 싶은 두 가지 항목이 생겨났다. 첫 번째 ‘문화원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무보수 봉사직이다’와 ‘문화원장은 봉이 아니다. 판공비 없다고 변상비 물지 마라’이다. 왜 빼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무보수를 표방했던 지자체 의원들의 의정비도 올리고 또 올려서 주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화마인드의 대명사인 원장들에게 어찌 봉사만 강요할 것인가. 실용정부에서는 그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 명실상부한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걸 맞는 예우가 있어야 할 일이다.

● **그리운 것은 다 문화원에 있다**

몇 년 전 어느 문예지 기획시리즈에 ‘가상유언장’을 기고한 일이 있다. 내가 만일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고뇌의 밤을 하얗게 밝히다가 산과 수필, 향토 문화를 삼색무지개로 삼아 자식들에게 주는 글로 썼다. 그 가운데 문화원에 대한 언급을 인용해 본다.

...그리운 것들은 모두 문화원에 있다. 문우도, 산우도, 선배도, 후배도 거기 다 있다. 이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했다. 아들이, 딸아! 애비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고향사랑 문화운동에 참여해 다오. 청주가 아니라도 좋다.(중략)

그렇다. 청주문화원 5백여 회원 속에 나와 인연 맺은 그리운 이들이 모두 들어 있다. 친구들에게 입회를 권유하면서 ‘들어오지 않으면 친구도 아니다’라고 압박을 가했으며, 평소 아끼던 후배나 이웃사촌들까지도 멤버로 끌어 들여 짝절한 회비수입까지 올렸으니 8년간의 임기를 마쳤다고 하나 문화원을 떠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나만 슬쩍 빠져 나온다면 위선자이거나 배신자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생의 후반을 불 밝힌 ‘지역문화지킴이 운동’은 임기를 마쳤다고 내릴 것밭이 아니다. 앞으로 평회원으로 남더라도 문화운동 그 한길에 여생을 바치는 전임원장이 되고 싶다. 미리 쓰는 유언장은 여생을 값있게 마무리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



박영수 청주문화원장 / 수필가

문화원의 뿌리가 되는 곳, 강화문화원

연합회에서는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제정했다.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1947년 10월의 강화문화원의 개원일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다. 이렇게 문화원의 근원이 되는 날인 10월의 강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① 문화원의 살림을 맡아하며 늘 꼼꼼히 살피는 김귀님 간사
② 문화원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서는 양태부 국장
③ 집무중인 남궁신 원장



강화문화원의 식구들. 좌로부터 양태부 국장, 남궁신 원장, 김귀님 간사, 류종현 위원

● 1947년에 창립된 강화문화원

양태부 국장이 사무국장 모임에 갔을 때란다. 국장들마다 문화원 자랑에 침이 마르는데, 대화 내용 중에 어느 문화원이 더 오래되었나 하는 얘기가 나왔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20년’ ‘우리는 30년’ 자랑하기에 바빴다. 양태부 국장이 잠자코 듣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 우리 문화원은 47년에 창립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60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찾아보니 강화문화원보다 더 오래된 문화원은 없더라고. 그러고 보면 강화문화원은 문화원의 어머니 격이 되는 셈이다.

“물론 문화원의 역사 정도에 따라 내 문화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겠지요. 제가 아는 다른 문화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원이 문화원 역사의 첫 획을 그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보태어진 거죠.”

문화원을 말할 때마다 ‘우리’ 자를 빼먹지 않는 양태부 국장이다. 그렇게 문화원 뿌리 찾기에 맞추어 지난해 60주년 기념 시낭송회를 갖기도 했다. 처음부터 예산이 잡혀있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기회가 되어 인천시지회에서 지원해주었고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고.

● 문화원은 지방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책임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강화문화원에 대해 남궁신 원장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강화문화원의 시작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1947년 10월, 민관이 합일



1



2



3

- ① 자체 제작한 블라인드, 강화문화유적을 하나씩 삽화로 곁들였다. 꼼꼼한 마음 씀씀이가 느껴진다
- ② 강화 체험답사를 위해 선발대로 온 대학생들과 대화 중인 양태부 사무국장
- ③ 한쪽에 놓아둔 진열대, 지방문화원의 소식지 및 문화잡지가 꽂혀있다. 버려진 것을 주워 활용한 것이라고, 강화문화원만의 센스가 돋보인다

하여 자생적으로 탄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관심을 갖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서를 기증해주시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살려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원을 지키고 가꾸신 분들이 있기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남궁 원장이다. 그런 이유로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남궁 원장은 현재 강화에서 미발굴 미지정된 기념물이 많아 일일이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향토문화연구소를 더욱 활발히 움직일 예정이라고. 향토문화는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중앙의 관여보다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2008년을 꾸려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바쁘다는 남궁 원장이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입 모아

이야기하는 때이지만 이미 문화의 세기로 접어든 이상 문화발전에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런 이유로 문화원이 짊어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지방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더욱 굳게 다짐한다는 남궁 원장이다.

● 과거와의 조우, 강화지의 발간

강화문화원은 작년 '강화' 지를 발행하였다. 1948년 5월에 발행된 동명의 책자를 재발간한 것으로 강화군원로회 회장이셨던 유진국 용이 발행 당시 가지고 있던 책자의 복사본을 보관해 오다가 강화문화원에 기증하여 서고에 묵혀있던 것을 목차와 표지를 추가하여 영인한 것이다. 한국 최초의 문화원 잡지인 강화지를 재회하는 기회였다. 이 책은 강화문화관의 기관지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강화를 대표하는 언론의 매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잡지 발간은 당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기관지나 문예지 성격도 함께 있지만 읽다보면 그 시대 상황을 조명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처마 모습이 잘 어울리는 강화문화원 전경



- ①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교육으로 고구마 목을 쏘고 있는 어르신들
- ② 강화문화원 개관 60주년을 맞아 열린 '강화도 시낭송의 밤'
- ③ 강화문화원이 주관한 학생사생대회 모습
- ④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생태체험 실버리더 양성과정 중인 어르신들

흥미로운 점도 많다. 이를테면 연구여담으로 '교환양과의 대담기'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살펴보면 당시의 교환업무나 체제에 관해 엿볼 수 있다.

어느 문화원이 그렇지 않았을까만은 강화문화원 가족들은 2007년이 더욱 바쁘고 기억에 남는 해였다. 강화문화원 창립 60주년이 된 기념으로 시낭송회도 열었으며 '강화군민의노래' 공모제정, 총체 영화당지 조사보고, 명사 초청강연회 4회, 문화유적지 답사와 사생대회 등을 열어 군민과 문화원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데 힘쓴 해였기 때문이리라. 한 해를 돌아보고 나면 더 욕심이 생겨 그 다음 한 해는 더욱 발걸음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남궁 원장이다. 함께 있던 양 국장 또한 새 씨앗을 뿌려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본인에게도, 문화원도 만개한 봄날을 기다리는 겨울이라며 함박웃음이다. ☺

강화문화원이 1948년 5월에 발행된 책자의 영인본 '강화' 지

역사의 인물을 찾아

● 성남시 '뿌리 찾기'에 앞장 선 문화 사랑방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이 신도시 성남의 향토문화 총본산이 되고자 문을 연 지 30주년이 되면서 이제는 1년 중 40가지 문화행사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사랑방'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 행사를 손꼽자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3대 각 국경일 연례행사를 비롯하여 새해 해돋이, 정월 대보름, 순국선열 추모 3대 경축 기념일도 문화가족 백여 명에 의해 거뜬히 치른다.

특히, 부설기구 '향토문화연구소'는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른 적 없이 논문집 발행과 학술발표회를 연속해 왔으며, 위탁기관으로 '성남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에 매주 2천여 명 평생 시민교육 수강자들이 40개 강좌에 열성껏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원 사업으로는 시 향토유적 7건, 도 문화재 자료 3건이 지정되어 지역문화 꽃 피우기에 활발한 전통문화 지킴이의 제 한몫을 감당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신도시 성남시 위상을 드러낸 「성남 금석문대관(상·하)」, 「고려 명신전(상·하)」, 「한국 봉수 40선」, 「판교 신도시 마을이름 붙이기」, 「성남문화연구」, 「각 마을지」 발간물과 조사연구 결과로 인하여 강정일당 문화인물 동천 남상목 독립인물 지정은 받는 일과 분당구 구미동 원주민들의 민속예술을 찾아 내어 '성남오리플 두레농악'이라 명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 민속예술 재현사업으로 지정받아 모든 시민들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열성 있는 전통문화 전문가(향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광주, 성남, 하남시 3개 고장 연합체 '광주문화권협의회'와 '성남세거문중협의회'를 조직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남시 대표인물 둔촌(遁村) 이집(李集, 1327-1387) 선생 추모 사업에 모두 한마음으로 특색적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진행하며, 그 외 송산 조견(1351-1425), 연성군 이곤(1462-1524), 여류문인 강정일당(1772-1832) 등 역사 속 인물을 발굴, 연구한 가운데에서도 성남시 대표인물 둔촌 이집 선생의 추모사업은 벌써 12년을 넘었다. 그러므로, 문화원의 '우리 고장 뿌리 찾기' 사업은 신도시로서도 어느 정도의 활착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 역사의 큰 인물, 둔촌 선생의 우정 이야기

이에, 우리 성남시 역사의 큰 어른 둔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그는 14세기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터 680년 전(고려 충숙왕 14, 1327년)에 태어나 60년 동안의 생애를 마감한 고려 말 정치가요 학자였다. 처음 이름은 원령, 자 호연, 호 묵암자(남천)이었다가 중년 이후에 피신, 은둔생활을 마친 후에 이름이 집, 자 성로, 호를 둔촌이라 고쳤다. 일생동안 충성과 효행으로 자기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모든 벼슬을 마다한 채 여주 남한강변 이포나루 한 농촌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편, 그의 묘소가 현 성남시 관내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으며, 성남시향토유적 제2호 지정에서 경기도 문화재로 승격된 성남시 역사의 대표 인물로 추앙하게 되었다. 특히, 성현(1439-1504) <용재총화>를 비롯하여 김시양 <자해필담>, 안정복 <동사강목>, <둔촌선생유고>, <유사> 등에 실려 있는 '둔촌선생과 최사간' 이야기는 옛 선조들의 우정과 의리를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는 일화로서 의미가 깊다. 그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과 일자산 소재 '둔굴'에 의하여 마을이름 유래가 둔촌동이라고 된 것이라든가, <남한산성 국청사 효자우물> 전설, 경북 영천군에 아버지 이당(李唐, ?~1369) 묘소 아래 <제비 무덤(燕娥塚)> 전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다.

둔촌 선생은 일찍이 송경 용수산 아래에 사셨는데 신돈(?~1371)의 문객인 채판서란 자와 한 마을이었다. 선생은 신돈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큰소리로 그 죄상을 꾸짖었더니, 채판서가 암암리에 사람에게 사주하여 해를 가하려 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영리한 부친을 등에 업고 새재를 넘어 남으로 내려가 예전에 사간을 지낸 선생의 친구 영천 최원도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그날 최공의 집에서는 작은 술잔치가 있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선생은 곧바로 그 집의 사랑에 들러 잠깐 쉬고 있었다. 최공은 이 사실을 알자 거짓 놀라고 노한 척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화를 싣고 와서 서로 함께 하자는 것이다." 하고 몸소 일어나 내쫓고 사랑채까지 불래워 버렸다. 선생은 쫓겨 나와서 5리쯤 가자니 한 숲이 있기에 잠깐 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최우는 나와는 잘 아는 사이인데 지금 내가 궁해서 왔다고 해서 팔시는 앓을 터인데, 이번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짓이리라." 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최공이 지팡이를 끌고 그 숲으로 와서 부르기를 "이우는 여기 있는가, 없는가?" 하니 선생이 나와 대답하였다. 최공은 드디어 얼싸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낮에는 다락위에서 거처하고 밤에는 규중에서 자게 하였다. 최사간의 행동에 의심을 하게 된 최사간

부인은 여종 케비에게 최사간을 살피보라고 지시하였다. 어느 날 밤에 뜰에 나와 얘기하고 있는 둔촌선생과 최사간을 본 여종 케비는 이런 사실을 최사간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혀를 깨물어 반병어리가 되었고, 이 일이 있은 후 케비 또한 자결하였다. 그리고 공민왕 18년(1369)에 둔촌 선생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최사간은 빈림 등 여러 일을 갖추어 하되, 자신의 아버지 같이 대하고는 그 어머니 묘소 옆에 장례를 지내주었다. 한편, 신돈은 영천에 관문을 보내어 빨리 철폐하라 하였으나, 고을에서는 글을 올려 당초에 쫓아 보낸 사연을 아뢰니 일은 드디어 무사하였다.

출전 : 서울역사박물관 편저 <조선의 명가 광주이씨>, 2007.18쪽

● **해와 별 같하던 둔촌 청백리 정신**

광주이씨는 둔촌 선생부터 일어났는데 그는 도덕과 문장, 곧은 의지로 문중을 빛내고 후대에 복록을 전하여 대대로 유명한 선비들과 높은 벼슬 가진 자손들이 많이 배출하였다. 일찍이 성 현의 <용재총화> 기록에서 "지금의 성씨 가운데 광주이씨가 단연, 번성함이 최고다." 하였고, 둔촌의 큰 아들 탄천 이지직 이후, 3자녀와 8명 손자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3자8손구문과)는 이야기 또한, 널리 알려진 역사의 이야기다. 1368년(고려 공민왕17)에 신돈의 미움을 사서 생명의 위협을 받자, 가족과 함께 영천으로 도피하였다가 3년 후에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이후 주로 여주 천령현에서 지내다가 광주에서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서로 <둔촌유고>가 있고, 광주(현 서울 강동구 암사동) 구암서원에 제향되었다. 둔촌 인물에 대한 칭송의 말로,

- 성인의 도를 얻은 사람(목은 이색)
- 세속을 초월하여 고결한 경지에 있는 사람(포은 정몽주)
- 호연의 기를 체득한 사람(도은 이승인)
- 의사(義士)로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삼봉 정도전)
- 용모는 장중하고 강의해 보였으며, 기품은 팍 짜이면서 준수하였고, 음성은 옥이 구르는 듯 하면서 명확하고 유창하여(호정 하륜)
- 밝기가 해와 별 같아서 백대에 두고 영원하지 않은가?(이휴징)

다음 글은 둔촌 선생이 자손들 앞에 교훈으로 남긴 저 '정훈(庭訓)'이다.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라
늦어서 무능하면 공연한 후회만 하느니
머리맡 깨월은 멈추지 않고 화살 같네.

자손 앞에 글을 광우리로 주디하나
경서 한 권 가르침만 못하느니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너희들을 위하여 간곡히 일러두네.

이로써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글로써 일깨워 주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인물도 그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미, 서울특별시가 결단 내린 강동구 소재의 둔촌동 문화재 보호 사업은 해가 다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성남문화원의 '둔촌 청소년 문학상' 과 자매도시 중국 심양시와의 공동 추진행사 '둔촌 시조시-한시 백일장' 또한 해를 거듭해 추진될 문화 사업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세종로, 퇴계로, 을지로, 둔촌로 같이 도로명칭에 역사인물을 제정하여 사용하듯이 전국 각 지역마다 그 고장마다 큰 인물들의 이름으로 문화표징비 건립이라든가 도로, 공원, 골목길 이름을 제정하는 뜻있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길 바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될성부른 나무와 될성부른 떡잎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제도권 교육을 이십여 년 받아오면서 살아온 젊은 날에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말로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의 뜻을 어렵듯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왜 이러한 말이 그렇게도 마음에 아프고도 힘겹게 다가왔는가를 가끔 생각해 보면, 지금의 삶이나 행동이 어른들의 눈에 제대로 맞아드는 일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젠 곧 한 사람의 생활이나 삶이 기존의 제도나 질서, 즉 그 시대나 상황에 얼마나 용납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 백여 년을 견뎌온 국보 1호 송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에서는 어떻게 송례문을 지켜냈는지 놀랍고, 어째서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쉽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모든 총체적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하고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만약, 옛날처럼 사람들이 물통을 직접 손에 들고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물을 퍼 던지는 방식의 화재 진압이 오늘날에도 있었더라면, 불길을 초기에 잡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범주

‘될성부른 나무’ 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용납이 되는 ‘나무’ 를 말하는 것이고, 교육이나 정치가 ‘떡잎’ 을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나 정치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알게 모르게 ‘될성부른 나무’ 로 자라가는 ‘떡잎’ 의 토양이나 환경 생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한 사람이 '될성부른 나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그러므로 지금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에 적합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판단 기준인 '문화'가 보편적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문화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그 시대 그 상황의 문화 범주에 머무는 문제여서 자칫 자기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문화의 준거들은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고, 언제나 유토피아인 채로 하늘에 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땅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을 맡기까지에는 공채시험에 재수를 했으며, 도합 1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로 인정을 받는 데에 45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난 5년 동안은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희망으로 살았으며 그 가운데 1년 7개월여의 시간을 현장에서 '떡잎'으로서의 시험을 치루고 있는 셈입니다.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인지 아닌지를 시험 받고 있는 시험대 위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어릿광대의 한갓 낭만이 아닐까하는 회의에 빠지곤 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될성부른 나무'를 판단하는 준거틀인 지역의 기존 문화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 문화원 예산집행 구조의 재개편 희망

지역 문화원에 있어서 예산의 구조는 거의가 다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분권교부세나 도비도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를 거쳐서 보조금으로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구조는 문화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잖은 괴리를 갖게 합니다. 문화원은 본래 법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늘날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를 창출

하는 국가적 공익의 창조적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원이 활동하는 공간과 기능은 국가목적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민 전체의 사회복지에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만, 때로는 지방정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업도 지역의 문화원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테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문화관계담당자들이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고유성이나 향토성을 지역의 문화원은 갖고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존재하는 지역문화원이 모여 이루어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문화원을 관장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지역의 문화원이 해당자치단체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예산편성 구조로는 지역문화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다하기란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끌고 정리하고 발굴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목을 매야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문화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이 지역문화원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역문화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며 지역문화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문화를 지켜온 지역문화원의 상근직원들만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 문화원의 발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화역사마을 사업의 당면과제와 해결점은 무엇인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에서 ‘될성부른 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화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인데, ‘떡잎’을 보는 눈은 그 시대 그 상황인 환경 생태적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타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원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거나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지역의 문화원이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 전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의 문화원이 문화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유성을 위협받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서 마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원이 어떻게 제대로의 사명감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



양일동 산청문화원 사무국장

금년 1월 문화관광부는 문화역사마을의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2년의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다보니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지역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적용,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포석이 반영된 결정이다. 특히 그동안 2년의 사업기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임없던 터라 이번의 공식적인 사업기간의 연장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역별 사업을 3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한 일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리에 대한 책임과도 직결된다. 더군다나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추진기간이 2009년에 종료되기 때

문에, 지역 내 갈등이나 외부요인 등으로 사업이 지체된다면 이에 따른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적 손실은 막대해 질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9개도에 1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13개 마을이 2005년에 일괄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선정년도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 정도나 종료기간에 차이가 있다. 영광 효동마을과 서귀포 법환마을이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비해, 안성 덕봉마을은 2007년 6월이니 2년 3개월이라는 차이가 난다.

- **제반 갈등이 사업지연의 원인**
이 사업은 추진과정별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서귀포 법환마을 막속포구



정읍 원촌마을 전경



영광 효동기공식



안동 군자마을 지점뜨기

있다. ▲1단계; 사업계획수립 ▲2단계; 사업집행 ▲3단계; 사업성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3단계를 제외한 두 단계가 실질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에 이뤄진다. 1, 2단계의 바람직한 기간은 각각 1.5년이 타당하다.

1단계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제반 조직화, 사업기본계획수립을 비롯, 실시설계 등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완료단계다. 2단계는 이전 단계의 계획을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 사업성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열쇠랄 수 있는 실행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업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경북 안동 군자마을을 제외하고, 각 지역별 당면과제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영광과 서귀포는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다. 그만큼 타지역의 사례를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문화원이나 마을은 다소 생소하기 만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다. 또한 다른 10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있었을 법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정도로 두 지역에서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지역은 처음의 열의와는 다르

게, 뚜렷한 성과도 없이 금년 3월로 만 3년이 된다.

두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갈등에 따른 사업 역량의 손실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문화원과 마을, 문화원내부, 마을내부, 추진위원회 등 갈등이 생길만한 조직에서는 예외 없이 갈등을 빚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이 두 지역에서 모두 사퇴를 했고, 추진위원 또는 실무자들이 교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급기야는 3년여 동안 사업이 몇 개월 동안 한 치도 못나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이는 고스란히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갈등은 현재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이나 제공자들은 사업을 그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욕이나 개인적인 확신이 우선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두 지역의 갈등은 의외로 순수하다. 다만 합의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할 뿐이다.

이쯤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갈등이 두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역사마을 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갈등은 마을 사업에서 매우 보편적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마을 사업이 갈등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대부분의 마을사업의 갈등관계

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 있다. 그에게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을 묻자 대뜸 '해답이 없다' 라고 한다. 갈등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이 연장된다는 가정에서, 두 지역의 해결점을 찾아보면 첫째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순리대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추진위원의 마을주민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자기주장이나 아집, 돌출행동 등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철저한 일정관리와 시급하게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종료이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문화원집행조직의 사전준비와 즉각적인 집행이다. 여러 가지 용역공고나 계약, 공사 등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어야 주어진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금년에 원주 등 6개 지역이 사업마무리

원주 회촌, 강릉 학산, 서천 동자북, 통영 문어포마을은 2005년 12월에 동시에 시작되어,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된다. 그러나 네 지역이 비슷한 시기에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었다. 다만 서천이나 통영이 실시설계 중에 있어 네 지역간 격차는 원주

와 강릉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2~3개월 뒤져있다.

원주는 사업초기에 추진위원회 내부의 갈등이 있어 사업이 추진되고 1년쯤에 전문위원 2명이 사퇴했다. 결국 9개월쯤 뒤에는 갈등을 제공한 마을의 추진위원 2명이 사퇴했다. 결국 수개월의 사업 공백과 기본계획용역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와 마을, 문화원이 합심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릉이나 통영은 이렇다 할 큰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실무자의 잦은 교체는 일관적 사업집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서천은 무난한 기본계획을 마쳤고 문화원의 리더십 등이 사업의 본보기랄 수 있을 정도로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네 지역 모두 사업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문화원의 집행업무를 강화하여 철저한 일정관리가 있어야 한다.

정읍 원촌, 고창 사등, 의령 입산마을은 2006년 6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절반을 넘겼다. 사업의 진척 정도는 정읍과 의령에 비해 고창이 뒤져있다. 당초 갈등이 예상되었던 정읍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도 무난하게 완료

되었다. 고창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관련자 일부가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충주 목계와 진천 보련마을은 1년이 채 안된 지역이다. 비교적 무난하게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더딘 것은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조속한 기본계획완료와 특히 문화원의 집행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성은 지난해 6월에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느긋할 수는 없다. 기본계획용역의 시작이 6개월가량 늦어졌다. 이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일정관리가 요구된다.

● 문화원연합회의 철저한 일정관리 시급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금년 과제는 ▲철저한 사업일정관리 ▲가칭 ‘문화역사마을해설사’ 양성 ▲사업평가관리와 모니터링 ▲사후 사업관리방안 제시 등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역별 사업일정에 대해 주, 월별단위로 계획대비 실적(시행)을 점검해 기간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이 지체될 경우 원인을 찾아내, 행정지원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도 있어야 일정관리에 실패하지 않는

다. 다만 현재의 실무자 1명 외 일정관리를 주로 전담할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은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 마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가칭 ‘문화역사마을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을해설사는 타부처 마을사업과의 차별성, 마을주민의 자긍심 고취, 내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평가관리는 문화원연합회 뿐만 아니라, 문화원과 마을에서도 해야 할 과제이다. 향후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끊임 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년 중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살폈지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조직인 문화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강화, 심의위원회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심의기준의 완화나 절차의 간소화가 있어야 한다. 전문위원의 역할확대나 마을주민과 문화원 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

전명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의령 입산마을 전경

섬의 국토시대 - 반도의 축제, 문화엑스포의 성찬

● 섬사람들을 하시는 잠재의식

반도국가이면서도 해양의 중요성 인식에 둔감했던 국민계도를 겸해 해양시책을 적극화하겠다고 신설했던 해양수산부가 이정권 수립과 더불어 국토해양부로 통합되고 말았다. 본디 섬 출신이었던 나는 한반도가 변영을 누렸던 시기는 역사상 해양성을 제대로 살렸던 때라는 인식을 신념처럼 간직하고 있다. 고향인 진도는 그 크기로나 생활관습을 볼 때 섬 같지 않은 고장이지만 지명 자체가 섬임을 나타내는 섬도(島)자를 쓰고 있어서 물에 가면 ‘섬놈’이란 칭호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치르는 대과에 응시할 자격마저 제한을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법을 이어 받은 조정은 죄인들을 유배형에 처할 때면 멀리 삼천 리 밖으로 내친다면서 섬으로 보내놓고 섬사람들에게 그 죄인들 식생을 책임지라 한 탓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랬건만 민주화된 광복 후에도 섬사람들에게 하시는 잠재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는 사회생활 중에 자주 느끼곤 했다.

● ‘섬, 섬사람’을 만든 2개월

70년 초 나는 전남의 섬을 두 달간 취재에 나섰던 적이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섬사람들은 대부분 1톤 내외의 노 젓는 전마선으로 내왕하던 때라 전남의 섬을 순회하는데 1백50여척의 배를 바꿔 탔다. 2개월간 섬 순회를 마치고 「섬, 섬사람」이란 제목으로 50회에 걸쳐 광주의 지방신문에 연재했다. 72년 이 연재물로 한국신문상을 탄 뒤 섬과 해양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 무렵까지도 섬은 물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인 이방지대였고 정부시책이라야 섬과 바다를 국토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대와

아직도 해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국민들이 반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나치게 내륙지향의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보기가 국토개발계획이다. 국토는 내륙면적 99,698m²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비좁은 내륙만을 대상으로 국토개발이나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과 불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귀찮은 대상일 뿐이었다. 섬에 대한 장기연재를 마치고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되면서부터 나는 섬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시책보다는 국토개념에서 다뤄야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 해양에 관한 인식 제고 시급

아직도 해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국민들이 반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나치게 내륙지향의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보기가 국토개발계획이다. 국토는 내륙면적 99,698m²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비좁은 내륙만을 대상으로 국토개발이나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국토개발계획은 육지만이 아닌 영해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영토경영 계획이어야 한다. 이때 그 영토면적은 내륙 4.5배에 달하는 영해의 바다까지를 활용하는 구상이 된다. 이 경우 섬은 영해 경영의 거점이므로 사람이 살거나 살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되고 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87년 한국섬학회를 발족시키고 '바다의 오아시스' 라는 잡지도 간행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양국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해양수산부의 신설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새 정부가 이를 건설부에 통합해 국토해양부라 이름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정자들이 해양의 국토 기능을 중히 여기기 위해 조정할 조직이름이 아니라 독립부서인 해양수산부만을 없애기 위한 흡수통합명칭이라면 실망스럽다.

섬 취재 중에 장보고 대사가 완도 장도에 근거를 두었던 역사를 알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해양경영에 탁월한 실적을 거뒀던 장대사를 홍보하게 되었고 그 공적으로 국민장을 받기도 했다.



● 히로시마의 '바다와 섬의 박람회'

89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바다와 섬의 박람회'에 초청을 받아 일본의 섬 개발 여러 유형을 시찰했다. 96년 전남도가 섬 개발을 위한 해양개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의견을 물어왔을 때 국내에서 가장 섬이 많은 전남이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과 더불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었던 89년도 행사 관련 자료들을 전남도에 보내주었다. 나는 섬을 주제로 한 일본히로시마 엑스포가 겨우 12개국이 참가한 국내용 박람회였지만 히로시마인근 섬을 홍보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 열릴 여수 해양엑스포는 여수내항이라 할 오동도 해역을 매립해 행사를 치루지만 히로시마엑스포 때는 히로시마지역 매립지뿐 아니라 인근 여러 섬에 분산해 행사를 진행했던 점은 역시 섬나라다운 배려였다는 생각을 갖는다.

나는 많은 섬을 거느려 개발은 물론 관리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행정애로를 타개하도록 일본 히로시마겐이 열었던 '바다와 섬의 박람회'를 흉내 낸다면 국민들의 해양인식에도 도움을 주고 정부가 낙도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발상을 말했던 것이지만 전남도는 통 크게 국제규모의 해양엑스포추진을 도시책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그 동안 열렸던 여러 엑스포를 생각할 때 변두리인 여수 해역에서 해양엑스포를 연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해 보였고 또 당초 제안의 초점이 섬에 대한 관심제고에서 벗어나 입맛이 씹쓸했다. 결국 1차 유치경쟁 때 실패해 나로서는 좌진 기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2차 도전으로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역시 국력의 신장을 실감한다. 이 행사를 제안할 당시 50대 후반의 현역이었던 나는 이제 70을 넘긴 노인으로 이 행사의 기획이나 진행에 발언할 처지가 아니다.

2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엑스포는 4년 뒤 여수에서 열릴 해양엑스포와 전혀 그 성격이 다르지만 당시 주최 측은 「섬을 생각하는 국제심포지엄」을 행사기간 중에 개최하여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면서 섬의 이용도

유엔 가입국 중 섬을 거느린 나라는 87개국에 달한다. 섬나라라는 영국은 전체 섬수가 1백 4개에 불과하고 일본은 6천 9백여 개이다.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로 16만개에 달하고 인도네시아는 1만 3천 5백여 개, 필리핀은 7천여 개로 나라마다 관심밖에 두었던 섬을 챙기고 섬주변의 해역을 중심으로 나라간의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구상의 자원 중 육지부의 자원은 거의 바닥이 드러나 해중자원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가 절정에 달할 세기임을 선언했던 특징이 있다.

● **섬, 자원의 대상을 넘어 생태의 대상으로**

유엔 가입국 중 섬을 거느린 나라는 87개국에 달한다. 섬나라라는 영국은 전체 섬수가 1백 4개에 불과하고 일본은 6천 9백여 개이다.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로 16만개에 달하고 인도네시아는 1만 3천 5백여 개, 필리핀은 7천여 개로 나라마다 관심밖에 두었던 섬을 챙기고 섬주변의 해역을 중심으로 나라간의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구상의 자원 중 육지부의 자원은 거의 바닥이 드러나 해중자원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해중자원개발을 위한 인공섬이나 기구가 고안되거나 시설경쟁에 들어갔다. 해중유전개발은 이미 당연지사가 되었고 쓸모없는 섬취급을 당하던 무인도마저 군사기지화가 시작되었다. 내륙의 원시림은 물론 세계의 모든 산꼭대기와 심지어 남극과 북극, 멀리 보이는 달나라까지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바다라고 남겨둘 턱이 없다.

더구나 바다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모태이다. 비좁은 국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당연히 삼면에 맞닿아 있는 바다로 나가야 한다. 이점에서 4년 뒤 여수에서 여는 해양엑스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자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생태의 대상이면서 문화의 대상이다. 여수엑스포추진위원회가 여수엑스포주호를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고 정해 생태에 편중될 위험을 안고 있다. 섬과 바다는 국내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선해야 할 것이지만 글로벌시대에 맞게 생태적 가치를 중시한 명분은 백번이해할만하다. 그렇더라도 바다나 섬이 인간을 떠날 때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바다는 중국에 문화의 대상이다. 나는 여수엑스포가 해양문화엑스포가 될 것을 바란다.



여수엑스포가 국민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여수해역은 먼 옛날 후삼국이 격돌할 때 중심해역이었고 일본 해적이 한반도를 넘볼 때 가장 먼저 엿보았던 해역이다. 이 해역에는 임진왜란이후 소서행장이 왜성을 쌓았던 곳이고 노량해전이 일어났던 곳이다. 화란의 하멜 일행은 이 해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세계에 한반도를 소개했다. 임진왜란 때 통영에 앞서 삼도 수군통제영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리던 1백여 년 전인 1885년 영국 함대가 여수해역의 거문도를 점령하고 흥정을 벌였던 역사의 땅이다.

여수 엑스포는 단순한 생태엑스포일 수가 없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조화롭게 현장화해 인류의 공영을 호소하는 미래지향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전시철학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면 여수엑스포현장은 일시적 잔치현장이 아니라 영원히 국민교육장으로 쓰임새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같은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여수엑스포는 다른 지역사람들의 질시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해양문화엑스포가 국민 성찬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김정호 진도문화원장



(좌측 윗줄부터 차례대로) 고전무용 강사 박초연 선생, 남해문화원 하희숙 사무국장, 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 박행순 씨, 응옥 씨와 딸 은진이, 희선 씨와 지성이, 유리 씨와 태욱이, 다도강사 이금숙 선생



① 폼나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태욱이
②사람들에게 일일이 차를 대접하느라 이금숙 선생 손이 바쁘다

남해문화원 결혼이주여성 사업 탐방 똑똑, 타인에게 말걸기

한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남해대교의 풍경을 담느라 마음이 바쁘다. 새 파란 바다에 부딪히는 햇별이 만들어낸 잔영에 비로소 남해에 도착한 실감이 난다. 보물섬이라고 불린다는 남해, 이곳에 색다른 사람들이 색다른 삶을 꾸미고 있다니 어디 들여다 볼 일이다.

● 어엿한 지성이 엄마 희선 씨

남해문화원 사무실. 함께 다과 시간을 갖자고 미리 얘기가 되어 이곳에 일부가 모여 다과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일찍부터 나온 희선 씨. 일명 우주복이라 불리는 발부터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을 아들 지성에게 입혀 나와 사무실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지성은 커다란 눈망울로 또랑또랑 주변의 것을 살피느라 바쁘다. 이제 세상에 나온 지 4개월이라는데 체격은 장군감이다. 지성을 돌보는 품새를 보니 워낙에 야무져 지성의 건장한 체격은 엄마인 희선 씨의 솜씨라는 걸 대번 알겠다. 잘 먹이고 입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열성이 여느 엄마가 다를까 만은, 희선 씨는 아이를 돌보는 손매가 남다르다.

남해문화원은 연합회 사업을 받기 전부터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해는 근래에 이르러 외국에서 시집 온 사례가 250여 건에 이른다. 다시 말해 남해에만 25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남의 집 이야기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사안이기도 하다.

● 남해친정어머니맺기 사업은 작은 정(情)에서 시작

남해문화원의 이호균 원장은 언젠가 주례를 섰는데 신부가 외국인이고 신랑은 우리나라 사람이더라. 나이가 지긋한 남자 쪽에 비해 여자 쪽은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한 어린 신부라 이상하게도 더 마음이 쓰였다고 했다.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되었던 마음의 씨앗이 결국 남해문화원에서 본격화된 셈이다.

“안 그래도 낯선 이국에서 말도 잘 모르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막막



- ❶ 건강한 체격의 지성이, 4개월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 ❷ 호기심 가득한 태욱이, 이곳 저곳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다.
- ❸ 칭얼대는 은진이를 안아서 달래는 남해문화원 자원봉사자 박행순 씨, 은진이는 원하는게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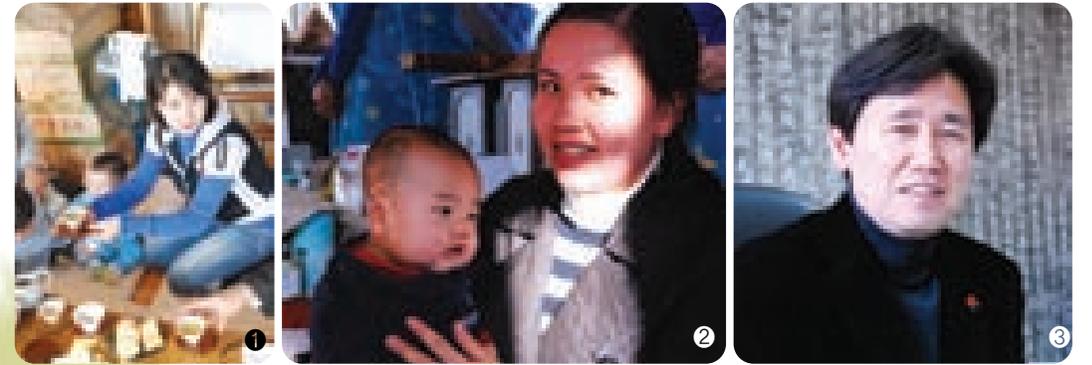
하겠습니까. 더욱이 갓 스물이 되거나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왕성한 나이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시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해친정어머니맺기’는 그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남해문화원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가 2005년 어버이날을 계기로 남해친정어머니맺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해 지역에 있는 중년 여성층과 결혼이주여성을 연계해주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에게 ‘엄마’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해의 ‘엄마’가 기저귀를 싸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미역을 사서 보내기도 한다. 그에 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버이날에 인사를 가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적절하게 보내는 남해의 어르신들께도, 사람의 따뜻한 정이 그리운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문화원의 남해친정어머니맺기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는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호균 원장의 마음에 심었던 그 씨앗이 그대로 싹이 터 자라난 썸이다.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

남해친정어머니맺기 사업은 2007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군 사회복지과에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 실시하라는 방침이 내려진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을 제일 빨리 알고 찾아온 곳은 바로 마스크.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하도 취재를 오는 통에 이제 ‘질린다’는 문화원 식구들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잘 된 것이 문화원 식구들에게는 기쁘기만 하다.



- ❶ 이야기 들으랴 찻잔 받으랴 정신 없는 응옥 씨, 뽀얀 피부때문에 더욱 어려보인다
- ❷ 창으로 들어온 해가 희선 씨 얼굴에 비추었다
- ❸ 남해문화원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이호균 원장

● 작은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

오늘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다. 평소 다도 선생님의 작업실로 쓰이는 곳에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기도 전에 뚝뚝뚝 가야금 소리가 새어나온다. 다과를 준비해놓고 한 곡조 뽑으시는 모양이다. 지성이를 데리고 온 희선(판티환) 씨, 응옥(판타이김응옥) 씨와 딸 은진이, 유리(뉴엔티감투) 씨와 아들 태욱이까지 둘러앉으니 대가족이다. 문화원에서 다도 강의를 맡고 계신 이금숙 선생의 배려로 상에는 잘 익은 감귤이며, 주전부리가 아기자기하다. 다기도 빠질 수 없다. 정성껏 준비한 차를 따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부녀회에 들어간 유리 씨를 찜질방에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다는 이야기부터 경찰서에서 베트남어 통역사로 활약 중이라는 희선 씨,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응옥 씨까지 서툰 한국어지만 오밀조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다. 하희숙 국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들의 가정사나 개인의 성격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하다. 언니처럼 친근한 모습에 서로 마음을 여는가 보다. 왕언니가 따로 없다.

응옥 씨, 희선 씨, 유리 씨는 중간중간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베트남어를 쓴다. 여전히 한국어보다는 모국어가 편한 까닭이다. 그러다가도 문화원에서 고전무용 담당인 박초연 선생의 유머에 모두 까르르 웃는다. 한국과 베트남 언어는 달라도 웃는 모습은 다 한결같다.

유리 씨는 얼마 전 이웃 떡집에서 일손을 거들어달라는 바람에 설날 즈음하여 며칠간 도왔다고 한다. 대기업 취업도 아니건만 부러운 눈으로 보는 희선 씨. 희선 씨의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운신이 힘든 까닭에 일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희선 씨는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



- ❶ 한가득 차려놓은 상 위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다
- ❷ 내내 조용했던 유리 씨, 그러나 부녀회에도 가입한 진짜 아줌마라고.
- ❸ 아이가 칭얼대자 은진이를 업었는데 그 모습이 전문가 수준이다

은 것도 참 많다. 그 많은 욕심을 스스로 부리기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서도 이렇게 작은 정이 담긴 수다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고향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웃음을 잃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문화에 관한 이해가 낮은 수준이다. 단일민족과 순수혈통을 강조하던 이 사회에서 이들이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들의 인권에 기초한 정책과 법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길 기대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가족으로 불릴 그 날까지 이들은 작은 소망을 품어 고이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연합회가 2005년부터 시작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사업은 2006년에는 16개, 2007년에는 5개의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평균 1,000만원의 지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좌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문화향수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특히 거주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복지의 실천 및 지역현실에 대한 문화적방법론 제시로 지방문화원의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간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이주자들의 차별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린 다문화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해문화원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사업 모습들

봄의 그늘

봄이 오는 그늘에
기차 시간을 놓친 흰 눈 한 덩어리

부끄럼타는 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았다

건드리면 울어버릴듯
위험하게 앉았다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게 잊어버렸다고

겨울나무 가지 끝에
순결하게 얼어 붙었던 눈물의 사랑

죽어도 녹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건드리면 터져 버릴듯
수상하게 앉아 있다



박정희 시인

내 영혼과 바다

나는 늘 바다를 꿈꾼다.

바다가 보이는 정원을 그리고 창을 열면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다를 향한 서재를 꿈꾼다. 도시에서 태어나 빌딩 속에서만 살아온 내가 향수에 젖듯 늘 망망대해를 그리워 한다는 건 아이러니이긴 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바다는 내게 있어 그리움의 근원지이며 방황하는 내 영혼의 귀착지이다. 또 때로는 도시가 빛은 혼란을 삭히는 평온의 무덤 같기도 하고 가끔은 내 혼돈의 늪을 끌어내리는 빗줄기 같은 것... 그래서 바다는 생각만 해도 황망하다. 그 진한 그리움 앞에 다가온 바다열차라는 이름은 며칠째 나의 많은 밤잠을 앗아갔다.

지난 가을, '열차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인 그야말로 '열사친'은 시간이 맞질 않아 버리고 별렸던, 바다열차 타기에 성공했다. 휴일 새벽, 강남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정확히 5시에 시동을 걸고 2분 후에 출발했다. 낭만의 바다열차를 탄다는 그 일은 그렇게 또 나이 든 어른들을 설레게 했던 말인가? 수원에서 분당에서 어둠을 가르고 정시에 모여든 20여명의 일행들을 보고 바다를 향해 달리는 내내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인의 '바닷가에 대하여'라는 시가 가슴에 와 박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잠자는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
지구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싶을 때

(중략)

바닷가 기슭으로만 기슭으로만 끝없이 달려가고 싶을 때
누구나 자기만의 바닷가가 하나씩 있으면 좋다
자기만의 바닷가로 달려가 쓰러지는 게 좋다'

휴일 아침, 잠을 설친 열차를 사랑하는 친구들, 저마다의 가슴 안에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하나씩 있는지도 모른다. 나보다 좀더 많은 세월을 산 친구들은 내 작은 그리움의 몇 배나 더 큰 그리움 때문에 늘 자기만의 바닷가로 달려가 쓰러지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명을 맞이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인의 말대로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도 들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발소리도 들리는 듯 조용한 망망대해였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은 끝도 없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도 같았다.

친구들은 저마다의 기슭을 찾듯 모래 위를 걸으며 미리 예약해둔 열차의 탑승시간을 기다렸다. 멀리멀리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기슭에 주저앉는 발걸음도 있었다.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자기만이 가진 내면의 대화가 있는 모양이다. 나는 중간쯤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다를 바라다보았다. 나의 기슭은 너무도 멀리 아득해 잘 보이지 않았다.

시골의 작은 해변역 삼척에서 출발하는 낭만의 바다열차는 목호를 거쳐 주문진 그리고 정동진을 지나 강릉까지 천천히 달렸다. 총 58Km나 되는 철로라니 실로 엄청난 해변여행이 되는 셈이다. 거리 감각에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강남에서 하남시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쯤 되리라 짐작은 갔다. 그렇다면 엄청난 바다구경이 되는 것이다. 그걸 아는 우리들은 아이처럼 들뜨고 설레었고 행복했다. 모든 좌석들은 바다를 향해 팔 벌리듯 길게 통유리로 된 창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바닷물이 금방이라도 출렁출렁 넘치고 들어와 손끝에 잡힐듯했다.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해변과 밀집해 있는 철로를 통과하는 푸른 바다 여행길 나는 서서히 그러면서 통째로 침몰 당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건 너무도 가까운 거리로 느껴지던 친숙한 방파제 때문이었다. 선명한 색채로 자꾸만 다가오던 빨간색 등대 때문이었다. 건재한 방파제위를 함께 걸었던 누군가의 말이 거기에서 들리는 듯 했다.

거친 파도 끝을 막아 항구안의 바다수면을 잔잔하게 다독겨려주는 강한 방파제처럼 영원한 방파제 같던 다정한 친구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때마다 언뜻언뜻 부딪혀 사라져가

던 그 친구의 얼굴은 친숙한 그곳에 오래도록 판 박혀 있었다. 누구의 바닷가는 아직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못내 멀어져가는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 마음속에도 순간의 해일이 일어났다. 바닷가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기슭에서 있고 추억의 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세월은 가고 열차는 달린다.

‘아 정동진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소나무, 장관인 일출로 더욱 유명해진 곳,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가깝다는 철도가 있는 곳, 경북궁에서 볼 때 정 동쪽이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는 유난히 한적한 해변의 정동진, 그 제야 종착역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선 U턴이 없다’ 던 선배의 말은 진리다.

환상의 바다열차를 타고 내 그리움의 근원지인 바다를 여한 없이 보았다. 그리고 물기어린 나의 영혼과도 재회했다.

언젠가 어떤 정신과 의사의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기차역을 지나치다 보면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는 글은 실로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우리는 어차피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삶의 도상에서 전진해야 한다. 달리는 열차 속에서 오래된 낭만과 추억에 마주하고 싶은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겐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삶의 회한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만나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늘 바다를 꿈꾸며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바다열차를 타듯... ☻



강은홍 수필가

다문화 시대, 어디로 가는가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우리 사회도 바야흐로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의식과 정책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일까.

- 다문화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정희
- 다문화 시대의 청소년 교육 이창호
- 한국의 외국인 인권현황과 과제 이석준

다문화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요즘 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다문화에 관련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막상 다문화 자체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다문화시대에 관한 흥미 위주의 떠들썩함 보다는 우리의 인식과 당면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문화시대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담론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각종 매체들도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와 특집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다문화에 대한 강연이나 행사들이 연일 개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 국가로서 지내오던 우리 사회가 얼마 전부터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이나 언어, 문화가 단일했던 시절에는 서로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별 문제를 못 느꼈는데

여러 민족, 언어, 문화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소통과 화합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커다란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분명 우리 사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변화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가 부딪히게 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변화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동남아에서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민족 정체성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도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파견근무자가 늘어 우리 국민 가운데 외국인 구성비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것’,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중 외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 공존공생 할 수 있도록 법률, 제도, 정책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의식교육과 같은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민족은 그동안 이러한 다문화 사회체제를 접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문화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 문화에 대한 인식들의 점검 필요

문화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삶의 여건이 비슷하면 문화적 동질성도 높아지게 된다. 과거에는 이동거리가 짧고,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문화의 변화 속도가 느렸던 반면 현대사회는 규모가 크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변화속

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여러 문화가 복잡하게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를 단일문화사회로 본다면 현대사회는 다문화사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단일문화를 가진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랜 역사 가운데 한반도 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해왔고 한반도 주변이나 더 먼 나라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있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이나 혹은 국민적 통합이라는 이념 아래 지나치게 단일 민족과 순수 혈통을 강조해 온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는 국가라는 지리적 경계, 혈연, 지연을 넘어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후현대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상황에서 각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민족 문화나 이주문화를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실시해 왔던 '용광로(melting pot) 정책' 즉 동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말한다. 서구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지향하여 이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주거나 재산의 안전, 고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기회와 혜택의 관점, 다문화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이 아니라 기회와 혜택의 관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다문화교육은 다수의 문화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혼합적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합적,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행위, 제도, 유산 등을 비판적 성찰의 소재로 삼아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삶 자체가 다문화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소수문화, 하위문화,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후현대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다문화적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세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다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한 문화, 나 자신에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역량을 길러가야 하는 것이다. ☼



정정희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다문화시대의 청소년 교육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일반 국민들에게 시급한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그 중 제일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계층이 있다면 청소년일 것이다. 다문화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그 상황을 겪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우리 일부분으로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급선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본다.

● 다문화 시대를 바라보는 차별의 시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우리 사회도 바야흐로 외국인 백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모두 1,20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가량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도 현재 13,445명이 전국의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2006년도에 비해 무려 68%(5,447명)나 증가한 것으로 이 중 85%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몇 년 지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가 작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가령, 생김새가 우리와 구별되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외모로 인해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또한 부모의 재혼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차별적이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고 우리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는 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제한된 의사소통과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10명 중 2명 꼴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에 이주해 온 그들의 어머니 또한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낯선 한국문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차별적이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고 우리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다문화이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필자가 작년에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시대 청소년교육의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청소년층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확대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확대다.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기초학습강화(국어와 독서지도 등)와 문화체험(박물관이나 고궁견학 등), 특기활동(탁구, 컴퓨터 교육 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은 그다지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이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다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등의 편견이 많은데 다문화이해교육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외국인을 대함으로써 그동안 가졌던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탈피해 외국인들의 진솔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가령,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1년에 10회 10시간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2시간은 근처 외국인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하고 나머지 8시간은 교사들이 진행한다. 이 학교 근처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이 외국인을 자주 접하다보니 학교 측은 학생들의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다.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학생들에게 많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이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다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등의 편견이 많은데 다문화이해교육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외국인을 대함으로써 그동안 가졌던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탈피해 외국인들의 진솔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외국문화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필자가 작년에 출장을 다녀온 호주의 경우도 수업시간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었다. 멜버른 한인회에 따르면, 다문화주간이 되면 한국문화를 소개해 달라는 연락이 학교에서 온다고 한다. 한인회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방문,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국음식, 호주 이민 역사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지리수업의 경우 학생들에게 한국이나 중국의 호주이민역사 등에 대한 과제물을 제출토록 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재량활동시간이나 사회수업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 기회 제공**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일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일반 가정을 섭외해 다문화가정아이들의 홈스테이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다문화가정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 청소년기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교류와 체험은 다양한 사회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인 것이다.

줘야 한다. 가령,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아이들과 짝을 이뤄 고궁이나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친목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캠프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일반 가정을 섭외해 다문화가정아이들의 홈스테이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다문화가정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 청소년기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교류와 체험은 다양한 사회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인 것이다.

● **다언어교육으로 정체성 강화**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언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인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어머니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한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삼중언어교육(아버지 언어 한국어, 어머니 모국어,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모국어교육은 자녀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 필요하고 영어교육은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사회적 소수자집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력한 다문화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에 있는 한 다문화대안학교 또한 다언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영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조선족이나 러시아 출신이다 보니 중국어와 러시아어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한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국어도 무조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한국어가 서툰 것은 아니다. 또한 몽골출신과 태국 출신의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한국어가 서툰 것은 아니다. 또한 몽골출신과 태국 출신의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 일선교사들은 고학년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고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통한 일대일 멘토링 등과 같은 개별서비스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는 교재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같은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학력수준이 높고 한국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우수인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해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상호 연계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의 외국인 인권현황과 과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장 레지 드 구태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심사한 후 최종 권고 보고서를 내면서 ‘인종적 우월성이 담긴 혼혈과 같은 용어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 고 밝혔다.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해 제네바 출장에서 다녀온 후 여러 가지 현안을 챙기느라 잠시 잊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당시의 당혹스러운 마음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조사에서 조사대상 55개국 중 한국의 인종차별이 51위로 나타난 것 등을 비롯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편협된 단일민족 신화에 대한 여러 차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반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이 우리사회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던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여 진다.

특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에서 다른 인종, 국가출신 이주민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 교과서에서 포함하는 등 한국정부가 각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국내 외국인의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상의 외국인 인구는 약 63만 2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결혼한 33만 2천여 건 중 외국인과의 결혼이 11.9%인 3만 9천 7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면 205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인구의 10%에 이르게 되어 외국인이 10명중 1명 꼴인 '이민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까지는 국제결혼이민자 2세만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재외동포, 난민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이라기보다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취업시킨 후 출국시키는 '단기순환고용' 및 '관리와 통제' 중심의 노동력 관리 정책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업 및 예산의 중복이라는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교류 증가로 '07. 5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72만 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등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주민 72만 2,686명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만 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만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만 4,258명이고, 외국인중 국적취득자가 7.5%인 5만 4,051명이다.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4만 3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9.6%를 차지(남성 55%, 여성 45%)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37만 9,000명)로 가장 많고, 동남아 23.7%, 남부아시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으로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는 동남아 출신자(여성 97.5%)가 '06년 1만 2,000명에서 '07년 2만 2,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하여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에 대한 집중적인 언어 및 문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전체 외국인의 6.1%에 불과하나 2006년 2만 5,000명에서 2007년 1만 9,000명(75.3%) 증가하여 4만4,000명인데,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 인권관련 기준

가. 국내적 기준

- 헌법 제6조 제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나.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27조
- 라. 사회권규약 제2조
- 마. 아동권리협약 제30조
- 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c)호, (d)호, (f)호
- 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외국인 인권의 영역

외국인의 인권 영역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함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로 구분된다. 자유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간주될 수 있고, 참정권, 재산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즉, 한국에서 외국인은 그가 입국할 때 발급받았거나 그 후에 변경한 체류자격에 규정된 지위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향유한다. 국내법원 판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진정현황

가. 개요

헌법(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은 법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므로 외국적자 뿐

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표적 차별사유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 민족 등이며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위하여 기존 인종차별팀을 이주인권팀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이주(migration)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나,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7.12.31 기준)

사건유형	접수	조사중	처리결과						
			소계	인용	합의종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중지
계	1,940	19	1,921	37	2	192	7	1,671	12
강제퇴거	50	1	49	3	-	13	-	33	-
고용제도	9	-	9	-	-	-	-	9	-
기타	62	4	58	1	1	15	-	40	1
난민	19	-	19	1	-	5	-	13	-
보호수용	181	1	180	10	-	65	-	98	7
비자거부 등 체류자격	160	4	156	6	-	34	5	109	2
산업재해	8	-	-	81	-	1	-	6	-
위법수사, 강제단속	125	7	118	9	-	45	2	61	1
인종차별	49	1	48	6	-	9	-	32	1
임금체불	29	-	29	-	1	5	-	23	-
재외동포법	1,244	-	1,244	-	-	-	-	1,244	-
출신국가	4	1	3	-	-	-	-	3	-

다. 진정내용 유형별 현황

진정사건은 주로 사증발급, 강제퇴거 등 외국인 입출국 관련 사항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본권과 밀접

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인력 및 노동정책, 사회보장 등의 정책적인 사안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 인권실태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인권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의 개별 진정사건 이외에 외국인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실태조사로는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2002),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2003),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2003),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4),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2005) 등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입국취업 과정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피해 유형은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빠른 작업속도,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적인 임금 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여권압류 등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인권실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35%, 한국어 부족이 20%,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이 15%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못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에 체류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자녀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상태는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아동 51.9%가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14.8%는 학교 선생님께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심한 체벌'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 응답자의 16.7%는 '선생님이 한국 학생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경험했다', 30%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아동들은 학교생활

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미숙한 한국어 30%, 한국어로만 수업 26%, 낮은 학업성적 16%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부모 중 63%는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이 60.3%,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가 4.8%였다.

혼혈인 인권실태조사에서는 혼혈인들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 결혼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유형의 차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학교에서 받는 놀림과 따돌림이었다. '학창시절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4.4%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 차별경험으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는 응답이 75.6%였고,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각각 29%, 8.9%였다. 또한 고용에서의 차별경험은 44.4%,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려움은 37.8%로 응답하였고,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의 문제를 차별로 인식한 경우도 24.4%로 나타났다.

특히 혼혈인들은 차별을 받았을 때 주로 '참는다'와 '무시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62.2%를 차지하고 22.2%만이 '곧바로 항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차별을 당할 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화교들의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들 중 77%가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79%는 '승진에서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5%로 나타났다.

특히 화교들은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58%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 79%는 '핸드폰 및 인터넷가입 등의 상업서비스 이용시'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화교의 46%가 '초중등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56%가 '대학입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주요 결정사례

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2. 8. 12)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등 합리적 외국인력제도 마련 권고

나.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 2. 10)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보호,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조항 개정, 외국인노동자 관리기관의 공공화, 여성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방안 강구 등

다.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3. 7. 14)

외국인지문날인제도 관련 지문날인대상자 범위 축소 및 불명확한 규정 삭제권고

라.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 권고 (2004. 5. 27)

입국 불허처분에 대한 외국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화 권고

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4. 10. 8)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최대보장 원칙 명시, 보호외국인에 대한 계구사용 조건 및 방법, 종류 필요최소한으로 제한, 보호외국인 신체 및 소지품 검사시 인격권 침해소지 최소화,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전화, 면회, 서신 등 보장 권고

바.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5. 5. 23)

권리구제방법 등을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고지, 보호외국인 위독, 또는 사망시 출신국 영사에게 신속 통보 의무화, 공동청원 금지조항 삭제, 격리보호 관련 규정 개선권고

사. 난민관련 정책권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협력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UNHCR이 난민인정 절차에서 의견개진

난민의 가족결합 원칙 명문화

난민인정신청인 등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여 합법적 체류와 취업지원 등

아.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7. 1)

차별금지 원칙의 부재, 혼혈인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적극적 조치의 원칙 및 내용의 부적절성, 업무중복의 문제

자.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권고 (2007. 1)

대행기관의 업무내용 선정시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
업무대행기관 지정시 부실운영 기관 배제 등

차. 여수출입국화재사고 직권조사 (2007. 4)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선구제 후통보 원칙’을 법률적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보호외국인들에게 영사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실질적 화재훈련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

경비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장기구금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시스템 정비 등

타. 크레파스 및 수채화 물감의 색상 중 ‘살색’ 명칭 개선 권고 (2002. 7)

살색이라는 표현은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되는
색명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황인종이 아닌 기타의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평
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 맺는말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
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미 가입
한 국제규약의 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
균등 처우에 관한 협약(118호)과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제157
호)을 비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경찰조사와 재판받을 때, 단속과정과 보호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다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고 통역서비스가
부족하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
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불법체류 자격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그 자녀가 의료, 교육,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의 체류자
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지내며 양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주여성은 문화차이, 언어소통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향토민요 아리랑의 존재와 강원도의 아리랑 양상

● 향토민요 아리랑의 중심지, 강원도

아리랑에 속하는 여러 노래들은 대개 향토민요, 통속민요, 대중가요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향토민요 아리랑은 전통사회에서 민중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혀서 부르던 노래로서, 여기에 속하는 아리랑은 <아라리>, <자진아라리>, <역음아라리>의 세 가지가 있다. 또 통속민요 아리랑은 한말부터 전문 소리꾼들이 잡가의 하나로 만들어 불러 온 민요풍의 노래인데, 여기에 속하는 아리랑은 향토민요 아리랑보다 많아서 <경기긴아리랑>,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중가요 아리랑은 특정한 개인들이 만들고 불러서 음반에 담아 상업적으로 판매한 노래인데, 이러한 노래들은 김용환의 <꼴망태아리랑>,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SG워너비의 <아리랑> 등 헤아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다.

아리랑 노래의 세 부류는 일정한 계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속민요 아리랑은 향토민요 아리랑의 양식을 취하거나 다듬은 노래이며, 대중가요 아리랑은 통속민요 아리랑의 양식을 본받아 만든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중가요는 말할 것 없이 통속민요 역시 한말부터 크게 유행한 당시 대중문화이다. 그러므로 향토문화로 자리하던 아리랑을 한말의 소리꾼들이 통속민요의 양식으로 전환시키며 대중화시키고, 또 이러한 아리랑이 널리 유행하자 대중가요의 작사자, 작곡자들이 새로운 아리랑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아리랑 노래는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아리랑 노래의 근원이 향토민요에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아리랑 노래의 근원이 된 향토민요 아리랑의 분포는 강원도, 경기도의 동부와 남부,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동부와 남부, 그리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보아 이 지역

들은 태백산맥을 축으로 하여 서쪽으로 뻗어나간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으로부터 갈려나간 노령산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향토민요 아리랑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인접지, 또는 그 연장지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토민요 아리랑이 강원도에서 분출되어 산맥을 타고 멀리 다른 곳까지 뻗어나간 것임을 의미한다. 향토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일도 강원도와 가까운 곳일수록 활발하고, 또 그 반대의 곳일수록 드물어지는 것도 강원도가 향토민요 아리랑의 중심지역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는 아리랑 노래와 아리랑 문화 근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 향토민요의 세 가지 아리랑 - <아라리>, <자진아라리>, <역음아라리>

향토민요 아리랑은 강원도에서 가장 성하게 불렀다고 했는데, 그 중에도 특히 많이 불러 온 노래는 <아라리>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원도에서 <아라리>는 2종의 나머지 향토민요 아리랑은 물론 전통사회 때부터 불러 온 모든 노래를 포함해도 가장 즐겨 불려온 노래에 해당한다. 나무하기, 나물뜯기, 밭매기, 삼삼기, 모심기 등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또는 여럿이 어울려 놀거나 혼자 한가로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노래가 필요하면 언제나 <아라리>를 우선적으로 불렀던 것이다. 요컨대 강원도 사람들은 일판이든, 놀이판이든,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래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대부분 <아라리>로 때워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라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이곳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라리>가 강원도 사람들의 생활전반에 거의 일상적으로 존재해온 만큼, 노래의 내용 또한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노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라리>의 주제는 이성, 인생, 가정, 유희, 자연, 사회, 지역 등 세상사 거의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기에 <아라리>에는 다음의 예처럼 시집살이의 고통, 늙음에 대한 한탄, 남편에 대한 성적 불만 등 오늘날 우리의 대중가요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의 노래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 1) 뒷동산에 오르니 친정동네 보이고
기약없는 시집살이에 눈물만 나네
- 2) 세월이 갈라면은 저나혼자 가지요
알뜰한 요내청춘은 왜데리고 가나
- 3)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물살을안고 도는데
우리집에 저명팅구리는 날안고돌줄 모르네

〈자진아리리〉 역시 〈아리리〉처럼 이런저런 일할 때나 놀 때 부르던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아리리〉만큼 폭넓게 불리지 못했다. 그것은 〈자진아리리〉의 정서적 지향이 〈아리리〉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아리리〉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일상적 희노애락의 정서 전반을 감당한 것이라면, 그 중 〈자진아리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진아리리〉는 리듬감도 〈아리리〉보다 짧고 빠르며, 또 가사 또한 같은 주제라도 〈아리리〉보다 가볍게 다룬 것들이 많다. 이러한 사정으로 〈자진아리리〉의 가사에는 다음의 예처럼, 남편의 무능함, 시집살이의 어려움, 성문제 등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도 희화화하여 형상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난다.

- 5) 영감아 꽃감아 집잘봐라
보리방아 품팔아 술사춤세
- 6) 시아버지 골내걸랑 술사주교
시어머니 골내걸랑 이잡아주지
- 7) 낮방아 잘짜야 쌀밥주나
밤방아 잘짜야 이밥주지

〈엮음아리리〉는 〈아리리〉를 변주한 노래이다. 〈아리리〉의 시작부분에 가사의 양을 늘려 촘촘히 엮어 부르다가, 뒤에는 다시 원래의 〈아리리〉 가락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엮음아리리〉의 첫부분은 오늘날 대중가요의 랩과 같은 분위기를 준다. 이처럼 〈아리리〉를 변주하는 것에는 〈아리리〉를 계속 부르다보면 생겨날 수 있는 진부한 기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엮음아리리〉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장난기, 곧 유희적 정서가 놓여 있다. 그러기에 〈엮음아리리〉의 가사에는 아래의 예처럼 엮음부분(~/)에 말장난의 기교나 우스꽝스러운 형상이 자주 드러난다.

- 8)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치고
마당웃전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받아치는데
우리집에 서방님은 낮잠만자네
- 9)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엮어매고 짝어매고 장치다리 곰배팔이
노가지나무 지계위에 엽전석냥 짙어지고/ 강릉삼척에 소금사러가셨는데
백봉령 굽이굽이 부디 잘다녀오세요

● 강원도의 아리랑 양상과 문화적 성격

강원도에서 향토민요 아리랑은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처럼 일상화된 보편문화로 존재했다. 이것들은 주민 거의 대다수가 함께 향수해온 것으로서 생활 속에 편재하고 있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향토민요 아리랑 중에서도 〈아리리〉이다. 창자들은 〈아리리〉 부르는 것이 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는가 하면, 신세타령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아리리〉가 단순히 노래한다기보다 무언가 속내를 말하는 언론적 문화로 기능해 온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자진아리리〉는 가벼움과 흥을 지향하고, 〈엮음아리리〉는 장난과 재미를 지향하여 두 노래는 〈아리리〉와 장르적 속성을 달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향토민요 아리랑은 일상에 편재하면서 삶의 언론도구로서, 또 생활을 가볍게 해주는 재미와 익살의 도구로서 기능해 온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을 말하고, 삶을 가볍게 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말한 것처럼 향토민요 아리랑은 차후 지역사회의 범주를 벗어나 통속민요, 대중가요로 이어지며 형성되는 아리랑 노래문화의 모태로 작용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향토민요 아리랑의 충격으로 〈경기긴아리랑〉과 〈경기자진아리랑〉이 생겨나고, 다시 〈경기자진아리랑〉으로부터 〈본조아리랑〉이 생겨난다. 〈본조아리랑〉은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의 주제를 달리 부르는 이름인데,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서 그 주제가 역시 인기를 끌어 여러 아리랑 노래의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 〈아리랑〉의 내용과 부합하여 〈본조아리랑〉을 비롯한 아리랑 노래 전반이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토민요 아리랑은 아리랑의 확산을 이루고, 또 아리랑의 성격을 형성해내는 문화적 씨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강등학 강릉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렉또베르소' 책의 목소리를 듣다

예술제본공방 렉또베르소를 찾아



예술제본공방 렉또베르소의 주인 백순덕 선생

입구에 또렷하게 쓰인 글자를 읽는다. '렉또베르소' 발음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치형으로 자리 잡은 창에서 저녁끝 별이 한창 쏟아지는 중이라 내부는 온통 주황빛이다. 종이 냄새와 풀냄새로 가득 차 더욱 몽환적인 이 곳. 어떤 일을 일어나는 곳인지 호기심을 안고 발을 들여 놓아본다.

● 국내유일의 예술제본공방 렉또베르소

늦은 오후, 네모반듯한 두 개의 탁자에 나누어 예닐곱 명이 둘러 있다. 풀칠을 하거나 종이를 자르거나 하는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모두들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인다. 아마 렉또베르소에서 예술제본을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일 것이다. 워낙에 신중을 요하는 작업이라 혹여 방해가 될세라 발걸음을 죽인다.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예술제본 공방이다. 홍대 앞에서 예술제본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다. 프랑스어로 책의 앞장과 뒷장을 의미하는 RECTO와 VERSO의 조합어인 렉또베르소(RECTOVERSO)라는 이름이 그 10년을 함께 지켜왔다.

예술제본이라는 말조차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10년 전이다. 이 공방의 안주인 백순덕 선생이 프랑스어 그대로를 해석해 내놓은 말이다. 예술제본장정은 유럽식제본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책으로 완성된 것을 다시 분해하여 오래 보존하고 심미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한 것을 일컫는다. 백순덕 선생이 불문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파리예술제본 학교 UCAD'에 입학하게 된 것이 이 공방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한국인 최초로 예술장정분야 직업교원자격증(CAP)



- ①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다
- ② 세세한 부분까지 다니면서 확인해주는 조효은 선생
- ③ 꼼꼼하게 작업중인 학생



예술제본 작품들



- ① 잔뜩 어질러진 책상, 저마다 작업 하느라 마음이 바쁘다
- ② 진열되어 있는 수틀
- ③ 렉토베르소의 전경
- ④ 수업을 마치고 가지런히 도구를 늘어놓고 나간 한 학생의 작업대 위



예술제본한 신약성경

을 따냈다. 이후 현대예술제본을 가르치는 베지네에서 다시 3년을 더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공방을 열었다.

● **치열한 신중함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예술제본**

“예술제본이라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책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데 그 의미를 크게 둡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의 전달자가 되는 셈이죠. 책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책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이 아니게 됩니다. 책을 받아들여 저자와 활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인쇄자, 소장자 등과의 만남으로 한 책의 역사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더욱 책에 깊은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백순덕 선생이다. 그런 이유로 예술제본을 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애정과 아주 약간의 미적 감각 그리고 치열하고 끈질긴 인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제본문화는 아직 척박하기는 하지만 미미하나마 책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여 진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는 백순덕 선생이다.

● **한 걸음 한 걸음 예술제본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들**

공방 곳곳에는 생소하기만한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책을 누르는 프레스부터 조합기 등 갖가지 도구들이 가득이다. 처음 공방을 열 즈음에는 이런 기구 하나, 책 제본할 재료 하나 구하기 어려워 직접 해외에서 구해 왔다고 한다. 국내에 수요가 없으니 주문을 넣어도 제작이 쉽지 않았고 설사 만들어진다고 해도 견고하지 못해 실망하기 일쑤였다고.

“그나마 요즘에는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직수입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

니다. 직접 구입하고 수송해 오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지요.”

공방의 초기 멤버인 조효은 선생은 처음 공방 사정 또한 많이 열악했다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쉰다.

“공방은 또 어떻구요. 지금은 이렇게 넓고 쾌적한 환경이지만 그 때만 해도 정말 작은 공간에서 복작복작했지요. 이렇게 저희 공방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예술제본 인지도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공방의 여건이 좋아지고 관심이 늘어나는 그 순간들이 전부 행복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손이 얼얼하다 못해 끝내는 아무 느낌도 없을 만큼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이들의 작업으로 렉토베르소에서는 오늘도 종이가 잘리고 풀이 발리는 책들이 가득하다. 어쩌면 이들의 행복어린 노력을 담은 책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런지.

렉토베르소에서는 2개월마다 초급반이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중급반과 고급반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의 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문제작도 가능.

문의 02) 326-1145 홈페이지 www.rectoverso.co.kr



- ① 한수녀님의 지긋한 손놀림
- ② 책상 밑 서랍을 열어보니 뭐가 뭔지도 모를 도구들이 잔뜩이다
- ③ 공방 한쪽에 진열되어 있는 미니 사이즈의 책들이 앙증맞다



공방 중앙에 놓인 조합기

정통 예술제본인 고전 1/2제본의 작업과정을 축약한 내용

(약 한 달 소요)

1 제본할 책을 분해하여 보수하고 기존의 표지를 연결하는 등의 본문 정리 작업



2 제본할 책을 분해하여 보수하고 기존의 표지를 연결하는 등의 본문 정리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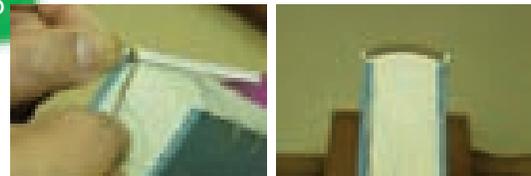
3 책등에 흠을 내고 톱질한 후 꿰매기



4 책등 동글리고 판지 연결하기



5 자수꽃천 만들기



6 사포로 갈아내기



7 표지가죽 갈기



8 표지장정



9 먼지 붙이기



책 갈 피



인천의 숨은 명인을 찾아서

연수문화원 발행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직접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채록과 각색을 하는 등 편견 없는 시각과 판단으로 엮은 인물자료집이다.

'중국어 거리 표지판' 고추만두의 창시자 조원정 씨를 비롯해서 '인천의 자랑 아벨서점'의 고수수집가 곽현숙 씨, '사월린 이주민의 삶' 김금학 씨, '자동차 수리의 달인' 장정길 씨, '실업자 7년여의 화수부두 배목수' 전경용 씨 등 9명의 명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생한 과거를 되새겨보는 순박한 삶의 현장을 채집하여 기록해 놓았다.



수원문화원 50년사

수원문화원 발행

1956년 8월 20일 창립총회에 이어 10월 28일 개원한 수원문화원이 '수원문화원 50년사'를 발간했다. 문화원의 설립 배경과 초창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역대 원장들이 추진해 온 문화사업들이 순서대로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2003년 7월에 제16대 원장으로 선임된 유병현 원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한 수원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원 사업의 학술적인 뒷받침을 위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단체인 '수원학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오는 등 많은 연구사업을 해 오고 있다. 성곽의 도시이며 호의 고장답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와 '효의 성곽순례' '화홍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해서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수원사랑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사단법인 난파함정단' '수원사랑 어머니회' '수원레이디오케스트라' '대한여성합창단' '경기민요 동인회' '세계절 봉사회' '시물놀이 동아리' '한지 사랑회' 등이 문화원에 속해 있는 단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남지역 3·1 독립운동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발행

3·1운동에 즈음해서 경남지역 각 고을마다 분연히 일어난 의거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비롯해서 3·1운동의 국내외적 배경과 3·1독립만세운동의 주요 인물들의 역할 및 그 이후의 주요 항일운동에 따른 항일 내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수록해 놓았으며 사적비와 유적비 그리고 기념관 등 항일운동의 유적지 현황도 함께 실고 있다.



돌마마을지(상)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지역은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여수동, 분당구의 이매동, 아탑동, 서현동, 울동, 분당동, 수내동, 정지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대원, 갈현, 여수, 도촌, 이매, 아탑동을 돌마마을지 상권에 소개하고 있다.

돌마마을의 역사와 지명의 유래, 민속, 세거문중과 문화유산, 역사 인물을 비롯해서 고장의 중요 기관과 경제 활동을 상세히 수록해 놓고 있다.



抱川鄉土史料總覽

포천문화원 발행

승정원일기는 1623년(조선 인조1년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왕명을 담당하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취급하였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매일매일 기록한 것으로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자료이다. 이 총람에서는 1864년인 고종 10년부터 1873년까지의 일기 중에서 포천과 관련 있는 지명, 인물부분 등 총 409건에 달하는 사건 등을 발췌해 놓은 자료집이다.



한국의 불교문화

문경문화원 발행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화려한 국교의 자리를 누려온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박해의 법난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불교 신앙인들까지도 불교문화를 접근하려면 난해한 용어와 전문성의 특성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편자인 채대진 원장은 고전과 외서에서 찾아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상의 이해, 사원 건축물, 불교 공예와 무형적 문화로서 불교 음악, 불교 문학, 제 의식, 수행생활, 제 종파, 경전의 결집, 계율, 우리나라의 불교역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으며 영래상과 각종 탑의 세부 명칭도 부록에 실고 있다.



아라가야 역사읽기

함안문화원 발행

최근 각종 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아라가야의 실체를 문헌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또 접근하고 있다.

아라가야의 성장 배경부터 멸망과 그 원인을 비롯해서 유물을 통해 본 아라가야인의 정신세계, 일본지역에 남아있는 아라가야 토기 등을 통해 일본 속의 아라가야문화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아라가야 관련 문헌 목록과 기록으로 본 아라가야사 연표, 함안지역의 고대유적도 실고 있다.



박장호 실기

가평문화원 발행

박장호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서 출생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유인식, 홍재학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는 상소를 하였으며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됨에 따라 흥천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대를 인솔하여 만주로 이동한 후 대한독립단을 결성하고 도총재에 추대되었다. 그 이후 평안북도 일원의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일본 경찰과 교전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1922년 만주에서 일제가 파견한 밀정 김현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선생의 묘소는 현재 가평군 북면 이곡리 대촌부락 후산에 위치해 있다.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속 蔚山の 옛 땅이름

울산남구문화원 발행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54책으로 이루어진 '조선지리지'라는 책인데 경상남도편은 32~38책 등 모두 7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32책 속의 '울산군'과 34책 속의 '언양군' 그리고 예전에는 울산지역이었으나 1906년(광무 10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거 인근 양산군에 편입된 '웅상면'을 37책 속에서 각각 발췌하여 영인한 것이다.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

청양문화원 발행

놀이문화는 어린이들의 학교교육의 변화와 놀이기구의 생산판매 등으로 새로운 놀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옛날 어린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흥미 있는 오락, 놀이를 하며 남녘에 따라, 공간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즐기고, 내기를 하며 우열을 가리고 득과 손실을 보는 놀이들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고덕가시 놀이' '오곡밥 훑쳐먹기' 등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 '풀각시 놀이' '글자 찾기' '우리보기 놀이' 등 두뇌개발형 놀이를 비롯해서 신체단련형 놀이, 겨루기형 놀이, 오락과 여가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集成堂誌

대전문화원 발행

집성당은 1898년 3월 삼희당 윤석봉(三希堂 尹錫鳳)의 주도아래 보령과 인근 서천, 홍성, 청양, 부여지역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세워진 사우로서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음력 2월과 8월에 향사를 행하면서 인근 선비들이 모여 강학(講學)하는 가운데 인륜도덕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항일 위정척사정신을 지켜 나갔던 곳이다. 집성당 창건 통문을 위시해서 상량문, 고유축, 춘추향사시 의례절차 등을 본문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임실향리지 下卷

임실문화원 발행

임실군의 1읍 11면 중 임실읍, 청웅·운암·신평·성수면 등을 2006년도에 발행한 바 있는 상권에 소개하고 이번에 신덕·삼계·관촌·강진·덕치·지사면 등 6개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임실향리지' 하권을 발행하였다. 각 면 단위로 연혁과 지형, 인구 이동의 추이, 역대 면장의 성명과 재임기간을 수록하고 각 마을 별로 주요 산업과 가구 수, 세대수, 인구, 경지면적 및 마을 연혁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으며 효자각 또는 효자비, 열녀비, 신도비, 기림비를 비롯해서 누정과 재실 등을 사진과 함께 실고 있다.



國譯 鄉土金石文化

고흥문화원 발행

고흥군 남부권(금산·도덕·도양·도화·봉래·포두·풍양면에 흩어져 있는 효자·효부·열녀비문을 발췌 번역한 책자로서 각 성씨별로 효행비 또는 유덕기적비 등을 마을별로 건립시기와 장소 및 행적에 이르기까지 사진과 함께 기록해 놓았다.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高興 <1>

고흥문화원 발행

한국역사오천년, 조선왕조실록, 전남사료집, 역대세기보 등의 자료에서 조선시대 고흥지역의 사료를 발췌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1406년 3월 태종 6년(태종실록)부터 세종실록, 선조 수정실록에 이르기까지 고흥과 관련된 각 왕조실록에 나타난 일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사라져가는 생활도구 자료집

창녕문화원 발행

우리 선조들이 생업도구로 활용해 온 직조기, 도랑기, 농기구, 목공구 등과 식생활도구, 문방제구 등을 총망라한 자료집으로서 호롱, 촛대, 다담목, 인두, 다리미, 화로, 대야 등의 등불·화로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함지, 광주리, 수통, 항아리, 낚시, 도시락, 양은술, 가마솥, 조롱박, 두레박, 나무바가지, 요강 등의 목통·식기류와 제조 측정기구 및 재래농기구, 생활용품, 농약기, 가전제품, 신발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모아 각각의 명칭과 용도 등을 설명해 놓은 칼라판 사진첩이다. 특히 이 자료집 발간은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조사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학생들의 향토의식 고취와 전통문화의 세대간 계승을 통한 청소년의 체험학습과 지역 정체성 이해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문화 소식



耽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발행

선사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제주도 역사를 자료 중심으로 소개해 놓았는데 삼성신화와 서불과차설 등 신화와 전설, 탐라국의 위상, 삼국시대 백제 · 고구려 · 신라 · 당나라 · 일본과의 관계, 삼별초와 제주도 등 각종 민란의 배경을 위시해서 수령의 임명제도와 제주의 공납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상을 기록해 놓았다. 제2편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마을의 고문서와 서책 또는 각 마을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내 아내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한방상식 123

김영섭 저

건강한 삶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소망이다. 현대의학과 과학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병균과 질병 또한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고자하는 인간의 열망이 새로운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 왔으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김영섭 원장(원백응당한의원장/동대문문화원장)이 인터넷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에서 한방 상담역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질의내용을 한데 모은 것으로 한방 상식을 쉽게 Q&A 형태로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잘못 사용하기 쉬운 민간요법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땅 한 평 책 한 권

박영수 저

수필가인 박영수 원장(청주문화원장/한국문화원연합회부회장은) 지난 8년간 문화원장을 맡아 하고 싶었던 일에 꼭 빠져 빠릿한 성취감을 만끽하며 보낸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 때문에 즐겨 찾던 산행과 창작활동이 다소 소원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자유로운 일상이 자기에게로 다가온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또 그 스스로도 유머 수필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익살이나 해학의 묘미를 살려 보고싶은 충동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 말처럼 이 수필집 곳곳에 유머가 넘치는 주옥같은 문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2백 여 쪽에 달하는 한 권의 책을 읽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소외지역에서 피어난 문화사랑방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사업은 국무총리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례집은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 74개소 가운데 25개소 문화공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엮어 놓았다.



실버, 새로운 문화세대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

2007 지방문화원 중심 노인참여 프로젝트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사례집이 발간되었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2005년부터 진행 중인 복권기금예술사업이다. 노년세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문화실천 프로젝트로서 전국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실버세대들의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각 장르별로 상세하게 그 활동상을 기술해 놓았다.

한반도대운하와 지역문화발전 세미나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문화경제학회를 비롯한 관련 5개 단체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대운하와 지역문화발전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경제학 교수인 전택수 씨는 '한반도대운하와 지역문화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기존 관광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기초발제를 하였으며 예일회계법인의 이참 고문(독일 RMD운하와 바바리아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과 한라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구문모 교수(대운하 회랑과 지역문화 콘텐츠활성화 방안)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강진갑 전문위원장(운하건설과 주변지역의 문화재 조사, 보존, 복원문제)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인 서울대 관수일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건국대 사회학과 김기덕 교수, 사천문화원 박동선 원장, 서남대 이병담 교수, 중앙대 예술대학원 황동열 교수, 문화재청 심광주 문화재전문위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임선빈 연구위원 등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세미나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문화 발전방안'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방문화원장협의회(회장 이병채 남원문화원장)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북 남원시 소재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장수·남원·구례·곡성·하동·산청·함양문화원장을 비롯하여 문화가족 및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문화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리산권역 지방문화원의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리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산이며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동일 문화권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 문화원 간의 직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공동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한편 그 실행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조경학과 김세천 교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리산 통합문화권 공유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연사박물관의 지리산권 건립에 따른 여건 분석과 건립의 당위성, 기대효과 등 타당성을 열거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에 앞서 7개문화원장 협의회장인 이병채 남원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의 수난과 영욕을 간직해온 지리산은 천혜의 보고로서 그 아픔의 역사는 토지, 혼불, 지리산, 남부군, 태백산맥, 동편제 판소리 등을 통해 문학으로 승화되어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의 문화로 국민의 가슴마다 스며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리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 동 정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에 한공익 씨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한공익(韓公翊 69) 남제주문화원장을 전원일치로 제5대 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신임 한 지회장은 제주도관광진흥위원장과 제주축제문화연구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제주도의회 의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다.



대구 중구문화원장에 정 훈 씨

대구 중구문화원은 작년 6월 임시총회에서 정 훈(鄭 堯 61)씨를 제3대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주)테크노우산과 디아텔 회장 및 대구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 원장은 동년 6월 29일 봉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윤순영 중구청장과 이진모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동안 중구문화원 발전과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주문화원장에 최봉길 씨

울주문화원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최봉길(崔奉吉 62) 부원장을 제3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울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주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울주군의회의장 등 관계 기관장과 한국문화원연합회 김 철 울산지회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최 원장은 울주문화의 재현과 계승, 보존과 특히 문화체험교실의 활성화 및 전문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시범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 원장은 진주교대와 동아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과 국민일보 영남본부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안산문화원장에 김봉식 씨

안산문화원은 작년 12월 14일 문화원 3층 안산문화사랑방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이 경선한 결과 76.2%를 득표한 김봉식(金鳳植 62) 부원장이 제7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금년 1월 30일 안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다수의 시의회의원 및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김 원장은 회원 배가운동과 함께 부설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

원 장 동 정

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진산업(주)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 원장은 그동안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양주문화원장에 박성복 씨

양주문화원은 지난 12월 27일 문화원 대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양주문화원 부원장으로 있는 박성복(박성복 60)씨를 제9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금년 1월 24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임충빈 양주시장과 원대식 양주시의회위원장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선우 경기도지회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박 원장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창조적인 문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광운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박 원장은 경기도 궁도협회 이사와 양주시 궁도협회 지부장 등 궁도인으로 활동해 왔다.



연천문화원장에 임상준 씨

연천문화원은 작년 11월 2일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연천고를 졸업하고 연천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임상준(任相準 61)씨를 제7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같은 해 12월 7일 같은 장소에서 관내 주요 기관장과 많은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태백문화원장에 권영한 씨

태백문화원은 1월 30일 문화원 2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문화원 이사로 있는 권영한(權寧韓 53)씨를 제7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원대를 졸업하고 극단 '표현' 대표와 태백시 합창단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원장은 추대에 따른 수락 인사를 통해 '축적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는데 있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천문화원장에 한상우 씨

화천문화원은 작년 12월 5일 문화원 소강당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문화원 부원장으로 있는 한상우(韓相祐 63)씨를 만장일치로 제9대 원장에 추대했다. 화천실업고를 졸업한 한 원장은 화천군 군정자문위원과 화천군체육회 이사 및 화천청년회의소 초대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원 장 동 정

신임 한 원장은 추대 인사를 통해 화천군의 민속예술 발굴 및 전승에 주력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마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문화원장에 김영풍 씨

장성문화원은 1월 8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가 경선한 가운데 70%를 득표한 김영풍(金泳豊 65)씨가 제15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월 31일 관내 기관장과 각급 사회단체장 및 문화원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원장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향토문화 발굴·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신임 김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주시에 근무해오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여수문화원장에 조재인 씨 재선임

여수문화원은 작년 11월 15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현 원장인 조재인(曹在仁 68)씨를 제5대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지난 2월 15일 문화원에서 관내 주요 기관장들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취임식 자리에서 조 원장은 문화원사 신축을 비롯해서 지역 토착 문중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 및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한국현대미협 초대작가로 활동해 오면서 (주)고려공업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제주문화원장에 조명철 씨

제주문화원은 1월 17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명철(趙明哲 73)씨를 제5대 원장으로 추대하고 2월 1일 하라크라운호텔에서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인과 청소년들이 유·무형의 문화, 문자문화와 비문자문화에 손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주문화의 미래비전 마련에 힘써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거쳐 일본 동경대 대학원 학교교육연구과 2년을 수학한 조 원장은 제주시 교육장과 제주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